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SEP 23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934 1982년 9월 22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Wednesday, September 22, 1982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점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총연합회 몬트리얼서 10월1~3일

한인의 날 기념 행사

여성·인종문제 토론등계획

81년 캐나다정부가 10월3일을한국민족의 날로 선포한 이후 첫 한인의 날을 맞아 한인총연합회(회장 오기송)는 10월1일부터 3일간 몬트리얼 쉐라톤호텔에서 인종차별문제와 한국여성문제에 관한 심포지엄, 한국문화의 밤등 대대적인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민족의 날을 뜻깊게 간직하는 축하와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기 위해 총연합회가 마련한 한인의 날 행사는 전국 각지로 부터 7명의 전문가를 초청, 강연과 아울러 질의 토론을 가질 심포지엄과, 이날밤 한국무용과 음악공연에서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총연합회는 행사 3일째인 3일밤 지난2월부터 박차를 가한 한국인의 캐나다이민 배가를 위한 교포만명 서명장도 캐나다정부대표에 전달한다.

김원겸박사 사회로 진행될 심포지엄 제1부는 인종차별, 기원, 표현, 대책(김보경박사) 종족관계에 있어서의 정부정책(김종만변호사), 인종차별과 한국교포(이유식씨)로 분과별 강연과 워크숍이 있게 된다.

김봉환박사 사회로 진행될 2부는 심포지엄은 한국여성과 직업전선(장영식박사), 제2세 육성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홍신웅 목사), 국제결혼의 시비(정희수 박사와 R.E.Miller여사)로 나뉘어진다.

2일 하오5시30분 개막될 한국문화의 밤 행사는 토론토·한국일보사 제정, 금년도 한인민족상 수상자인 김영숙씨의 춘앵무, 가야금병창, 부채춤, 탈춤등 공연과 김영주양의 오북춤, 장검무등이 곁들여 진다.

이날밤 7시에는 이규현 오타와대사가 짐·플레밍 복합문화성 장관에게 한국인 캐나다이민 배가를 위한 교포만명 서명장을 증정하고, 총연합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도 있을 예정이다.

한인의 날 행사는 3일(일) 총연합회의 총회및 결산보고등으로 끝이 난다.

특히 2일밤 쉐라톤호텔 9층 볼룸에서 펼쳐질 문화의 밤행사(입장권 $20.00씩, 캐네디언은 $25.00씩)를 제외한 모든행사는 무료로 공개된다.

연방정부및 한국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를 위해 몬트리얼 총영사관은 1일(금)저녁 식사를 행사참가회원들에 제공하며, 한·카의원 친선단의 캐나다측 의장인 로버트·C·콧츠의원의 연설등이 있게 된다.

캐나다 한인총연합회는 78년4월 오타와에서 5만 캐나다 교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발족, 각 지역 한인회 회장단의 중심으로 회원을 확보, 현재 6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

초대회장 오타와의 유태호박사, 2대회장 토론토의 강신봉씨에 이어 현재의 오기송회장은 제3대 회장이다.

지금까지 총연합회가 주관한 주요행사는 78년11월 토론토에서의 캐나다 한글교육자대회, 80년6월의 모국방문하계학교실시, 81년4월 코리어·콘벤션 '81(토론토), 82년4월 캐나다 한인연합회 부인회 창립등이다.

현재 연합회의 이사장은 강신봉씨, 부이사장은 김원겸씨이다.

이민의 정치적·경제적 권익을 가꾸어 가는 신문.
— 토론토 한국일보

베이루트 질서위해

평화유지군 급파

(워싱톤)수백명의 팔레스타인 난민 대학살로 세계적인 분노가 뒤끓고 있는 가운데 미국, 불란서, 이태리 3개국은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평화군을 다시 보내기로 했다.

레이건 미국대통령은 20일 전국으로 방영된 TV연설을 통해 "미국은 그 악몽을 종식시키기 위해 해병대를 레바논수도에 시한부로 파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들 3개국 군대는 "치안유지군"으로서가 아니라, 레바논정부가 수도 베이루트의 통치권을 완전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띠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레바논정부는 성명을 통해 "평화유지군이 되돌아와 20일간 머물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2,130명의 평화유지군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게릴라들이 베이루트에서 철수하는 것을 감시한 후, 일주일전에 베이루트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지난14일 평화군의 마지막 부대가 떠나는 날, 폭탄이 터져 대통령당선자 바샤·게마옐씨가 폭사했고, 다음날 아침 이스라엘군이 처음으로 서베이루트를 공격했다.

그후 지난16일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우익 기독교민병대가 피난민촌을 급습, 수백명의 팔레스타인 남녀와 어린이들의 무차별 학살했다.

오늘의 예금금리

기 간	한인신용조합 일반정기예금	한인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2.5%		12%
90일	13%		12.5%
180일	13.5%	13.5%	13 %
365일	13.5%	13.5%	13 %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대통령 소유부동산 등록

민정당, 동산도 신고예정

(서울 20일=연합)전두환 총재를 비롯한 민정당간부 189명은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 내역을 당본부에 등록했다고 김용태당대변인이 20일 발표했다.

한국 정당사상 처음으로 지난 9월1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민정당원들의 부동산등록은 정의사회의 실현을 촉진시키고, 개혁을 위한 당의 결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 이라고 김대변인은 밝혔다.

전대통령과 당간부들이 신고한 개인부동산은 대지와 사업체를 포함, 자신과 배우자의 명의로 된것은 물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명의도 해당되었다.

민정당은 또한 공직자윤리법이 실시될 때까지 당간부들의 동산마저도 등록시킬 방침이다. 이들이 신고한 자산의 내용은 동산의 등록때까지는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 개정
최저액등 재조정

(서울)한국정부는 외국과의 자본거래 규모가 계속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외자도입법을 개정, 현재 건당 20만달러의 외국차관도입 최저한도액을 100만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새로운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국차관도입 상한선을 1천만 달러에서 5천만달러로 크게 증액시켰으며, 자본및 기술도입 절차를 간소화, 주무관청을 경제기획원에서 재무부로 이관했다.

◀사 고▶

단풍과 미녀의 앙상블
사진촬영대회

대자연의 정서와 예술의 상봉!

사진협회와 본사 공동주최 아마추어사진촬영대회가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다.

오는 10월2일(토) 상오11시 보이드·콘저베이션 공원(이슬링턴×하이웨이 7 북쪽)에서 열리는 추석맞이 단풍과 미녀의 앙상블을 렌즈에 담는 이번 촬영대회는단풍 경치가 절경이며, 시냇물이 운치를 더해주는, 촬영에 보다 알맞는 명승지이다. 거기에 아름다운 미녀들이 모델로 등장, 더욱 운치를 더한다.

특히 이번 사진대회에는 올해 캐나다 미스코리아 「진」함승희양, 「미」박은희양, 등이 모델로 등장, 참가자들의 렌즈를 광나게 해줄 것이다.

대회 당일 참가자·동행 일동이 대자연의 절경을 배경으로 바베큐도 즐긴다.

지난 77년(제2회 대회)에도 이곳에서 촬영대회를 벌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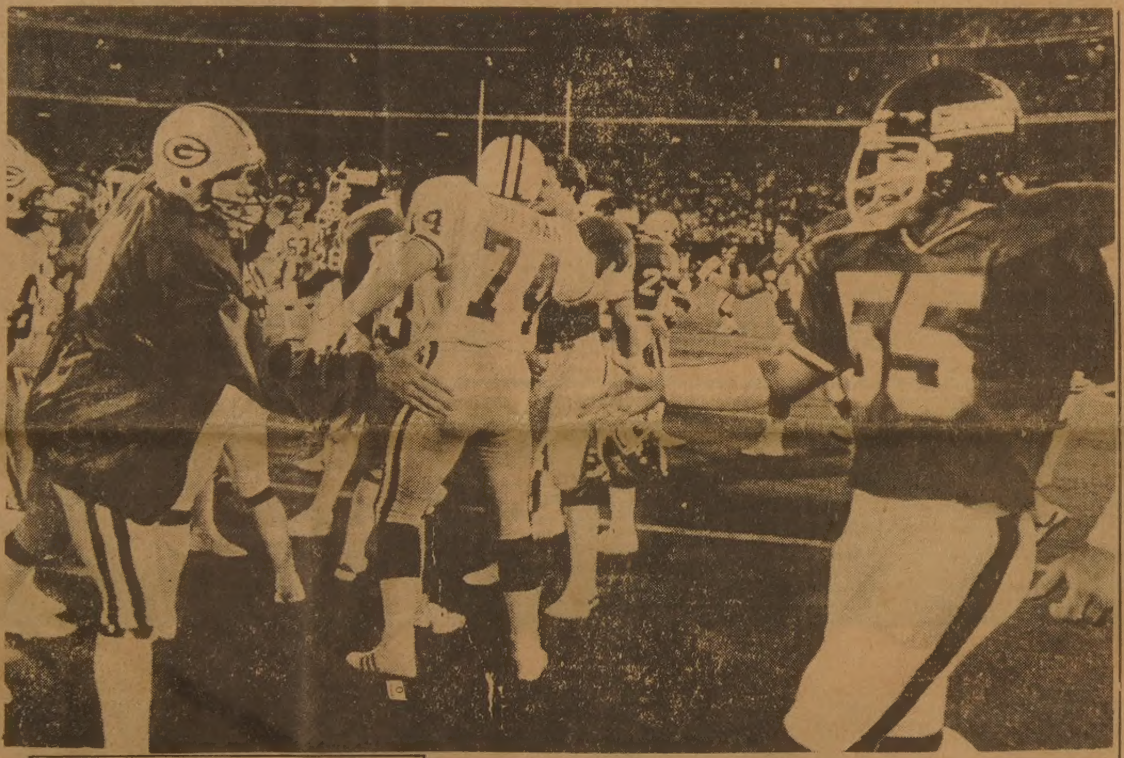
작년과 재작년은 1박2일 캠핑으로 나이아가라 폭포 촬영대회를 가졌었다.

이번 촬영대회 규정은 아래와 같다.

▲종류 : (1)칼라부, (2)흑백부, (3)슬라이드부
▲규격·마감 : 사진 크기는 5"×7", 10월30일 출품마감.
▲참가비 : $10(칼라필름 1통 제공)
▲참가자수 : 선착순 100명
▲시상 : 1~6등, 트로피및 부상
특선 : (최고상) 나이콘 카메라
1등 : 3 각대
2등 : 후래쉬
▲문의및 접수처 : 전경수 (☎438~4435)
킴스카메라(☎534~1085)
새한칼라 (☎535~7772)
한국일보사(☎533~2361)

촬영대회 출품작품들은 합동전시되며, 입상작들은 한국일보 서울본사 발행 〈주간한국〉, 〈주간여성〉등에 소개된다.

주최 : 한인사진협회
한국일보사



◆시작된지 2주만에 파업에 들어간 NFL(미국프로훗볼리그)선수들의 최종게임, 20일밤 뉴욕에서 열린 그린베이 패커스와, 뉴욕·자이언츠의 게임을 마지막으로 파업에 들어간 프로훗볼선수들은 경영주들에게 게임당 870만달러 TV중계료의 반액을 선수들에게 할당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훗볼은 미국에서 관중들의 인기는 최고이나, 게임은 적고 선수들은 많아 평균연봉은 8만달러 밖에 안돼 야구, 농구, 하키등 다른 프로스포츠에 비해 훨씬 적은 급료를 받고 있다.

이 경기에서 그린베이는 27-19로 승리했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대리점
금은화상품
귀국선물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 534 9977 7791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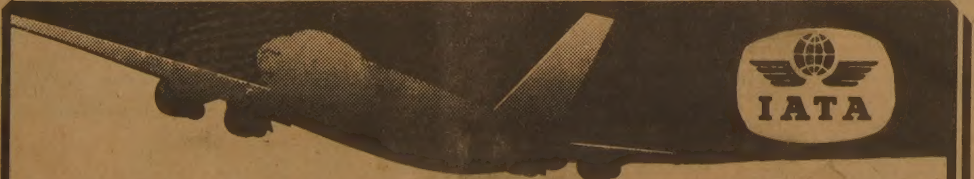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De 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2 Carat
Diamond Cluster
Ring
— Reg. 1,000.00
— Spec. $749.95

Coin Jewelly
고급시계
이태리 수입 고급
귀금속 취급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IATA
여름철 특별봉사
○ 서울단체 매일출발
○ 방문초청 특별요금
이제는 친구및 3촌 이상 친척까지 초청의 문호 개방.
단: 항공료와 체재비 부담조건.
○ 국내, 국제항공표 일체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 · 2156
R) 492-7525 김 창 범

단풍이우리를부릅니다
☆매주 당일관광
(알공킨 단풍코스 포함)

	관광지	출발	도착	집합	요금
월	30,000 ISLANDS	9:00	20:00	코라메	$59
화	알공킨 (입장료포함)	8:30	20:00	코라메	$56
수	나이아가라	10:00	19:00	코라메	$55
목	1,000 Islands	9:00	20:00	코라메	$59
금	알공킨 (입장료포함)	8:30	20:00	코라메	$56
토	나이아가라	10:00	19:00	코라메	$55

⊙비고 : 관광안내및 왕복교통·점심 BOAT·유람비용등 포함.
◎출발은 7인 이상일때 한함.
◎개인별관광(4인이하)은 별도문의 바람
◎신청마감 : 각 출발일 이틀전
★일정및 요금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도 있읍니다.
★기타 관광에 대한 자세한 문의 환영합니다
코라메관광(주)
649A BLOOR ST. W.
☎: 535-0853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민요가수 최정자 출연
경로잔치 25일로 박두

82년도 토론토지역 경로잔치가 오는 25일(토) 나이트클럽 오리엔탈·팔레스에서 총영사관등 관계기관과 많은 단체의 후원아래 토론토한인회(회장 박인순) 주최로 열린다.

경로사상을 교민사회에 고취시키고 소외되어가는 노인층 교민을 한때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기위해 마련하는 이 잔치는 오후1시부터 5시까지 4시간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처녀뱃사공"등 많은 힛트곡을 낸 인기민요가수 최정자씨가 한국에서 와서 출연하며 서울훼밀리악단의 흥거운 연주와 가야금·장고타령이 있을 예정이다. 이밖에 만담과 노인참석자들의 장기자랑도 있다.

한인회측은 금년의 참석자수가 지난해의 300여명보다 크게 늘어난 600 명이상이 될것으로보고 준비중이다.

한인회·오성숙간사는 경로잔치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전하면서 55세이상의 연령이면 누구나 참석할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토지역의 노인수는 2천여명가량 되며 한국노년회에 등록된 회원만도 600 명이 넘는다.

교민노인들의 평균연령은 68세이다.

영업시간 변경
한인신용조합

토론토한인신용조합(이사장 한상훈)은 18일(토)부터 영업시간을 아래와 같이 바꾸었다.

월~목 상오10시~하오6시

금 상오10시~하오7시

토요일은 휴업.

동조합 주소는 641 Bloor, St, W, Tor, 전화 : 533-9387·9388)

「새로운 국가관」
함석헌선생 강연회

토론토한국민주사회건설협의회(회장 박찬웅)주최 함석헌옹 초청강연회가 오는 25일(토) 하오7시 온타리오교육회관(252 Bloor St, W, Tor)에서 열린다.

함옹의 이날 연제는 「새로운 국가관」이다.

한국산 스틸·파이프
덤핑 수출여부 조사

캐나다정부는 한국의 대캐나다 철강제품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산 카본·스틸파이프가 캐나다시장에 덤핑으로 수출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토론토·스타 일요판(19일자) 보도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이와같은 결정은 최근 캐나다의 스틸·파이프 생산업자들이 한국의 철강생산업자들을 상대로 덤핑항의를 제소한후 내려졌으며, 만약 캐나다생산업자들이 승소할 경우 한국은 카본·파이프 수출시 반덤핑세를 붙게됨으로서 한국의 철강파이프 대캐나다수출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한국은 지난해 42,368,000달러 상당의 철강제품을 캐나다에 수출했는데, 이는 1년전에 비해 86.6%가 증가된 숫자이다.

안식교신앙강연
24일부터 11일간

토론토의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오는 24일~29일, 10월1일~3일 하오7시30분 「마지막날을 위한 준비」, 「자녀교육문제」주제의 연속신앙강연회를 가진다.(225 Finch Ave, E).

강사는 아윤희 목사(올림픽교회 담임), 박형종 목사(자녀교육문제)이다.

교민동정

◆이연우 (토론토교포)— 충남 태안여상교사로 있다가 토론토 교포와 결혼, 19일 토론토공항 도착 이민왔다. 신부 박경숙씨는 본사 식자실 근무.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는 컨트리·송여가수 돌리·파톤이 지난 수년동안 부인병을 앓아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 파톤은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연계획을 강행하다 지난달 말 인디애나 폴리스에서 열린 야외공연장에서 쓰러져 금기야는 뒤에 남은 35주순회공연및 일반연주회를 모두 취소하고야 말았다. 파톤은 공연취소를 무엇보다 싫어했으며 그로인해 무리한 공연을 시도하게 됐던것. 이번에 8주간의 미국및 캐나다순회 공연을 시작하기 일주일전부터 파톤은 하혈증세를 보여 의사는 모든 계획을 포기할 것을 권했다. 이날도 파톤은 통증이 계속됨을 참고 무대에 출연 명랑한 모습으로 청중들을 즐겁게 했다. 그러나 무대뒤로 들어서면서 증세가 악화되어 곧 뉴욕병원으로 직행하고 말았다.

데이비스목사 설교
새예루살렘교회 한돌

토론토의 새예루살렘교회(담임목사 김승환)는 창립1주년기념 성회를 가진다.

10월9일(토) 하오7시30분 동교회(5 Grenoble Dr, 돈밀)에서 열리는 동 성회에서는 데이비스·메인즈목사의 특별설교가 있다.

메인즈목사는 TV선교로 유명한 목사이다.

씨알학교 개학
특수프로그램실시

씨알한국인학교(교장 유희자)는 오는 25일 개학한다.

이번 신학기부터는 중·고등부 한글교실을 증설 유치부·초등부와 더불어 전 7학급의 한글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특수 프로그램으로 영어·수학·미술·태권도·음악(피아노·바이얼린)·무용도 가르치며 영어는 캐네디안 정규교사가 가르치고 수학은 Commodore콤퓨터64를 사용, 한인콤퓨터 전문가(프로그래머)가 가르친다.

특히 중등부 특수지도에서는 콘서바토리 시험을 위한 음악이론도 가르치고, 고전무용은 전문적 레파토리로 지도한다.

수업은 한글학교가 매주토요일 상오9시30분—12시, 특수프로그램은 같은날 하오1시—3시, Deer Park국민학교(23Ferndale Ave, Tor,)에서 실시된다.

연락처 : 960—0074(유희자), 441—2986(여정자)

"소련이 배후관련"
작년 교황암살기도

(LA지사)작년에 발생했던 교황 요한·바오로2세 암살기도 사건의 배후에는 소련이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NBC뉴스가 보도했다.

자유노조 솔리대리티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교황이 폴랜드를 방문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

9월21일 방영된 NBC다큐멘타리 「교황을 쏜 사람, 테러리즘 연구」는 바티칸당국과 서방정보소식통의 주장및 사건당시 상황증거들을 펼쳐가면서 「이런증거들이 소련이 교황에 대한 음모를 품고 있었거나 적어도 사전에 암살음모를 알면서도 저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바티칸소식통을 인용, NBC는 폴랜드내에서 솔리대리티운동이 일어날때 폴랜드태생인 교황 요한·바오로2세가 소련 브레즈네프서기장에게 밀사를 통해 서한을 전달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솔리대리티가 점점 세력이 강해지고 독립적으로 되자, 소련은 급하게 되었고, 폴랜드 자유운동을 뒤에서 지원하는 교황에게 타격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바티칸의 실비오·오디추기경은 이 다큐멘터리중 인터뷰에서 「누가 이 사건에 관련이 되었는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한 개인이 관련된 것은 아니다. 암살을 기도한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는 정말 전문적인 살인자로 증명이 되었다. 따라서 그는 분명히 다른 이들의 조정에 따라 움직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제5계절>
하나의 화살

김 인 호 (서양화가)

◆필자 소개

◉1956년: 인천 출생
◉ 72년: 캐나다 이민
◉ 77년: Clarkson Secondary School 졸업
◉ 80년: Dorothy Stevens 장학금 이태리 플로렌스 유학
◉ 81년: O.C.A. 졸업, 동교 조교
◉ 81년: Gallery 76에서 3인전
◉ 현재: Wayside Gallery를 통해 작품활동중.

◆김인호 씨

중국인 시인 이태백은 삼배 통대도(三杯通大道), 일두합자연(一斗合自然)이라 하여 술을 석잔만 마시면 벌써 큰 도에 통하고, 한말을 마시면 자연에 합한다 했다. 큰 도를 닦은 애주가의 멋있는 과장이다.

요즈음 나는 술을 석잔 마시면 언젠가 책에서 본 노인이 넓은 마당에 우뚝 선채 깊은 우수에 잠겨있는 장면이 떠오르고, 한말정도 마시면 그가 쏜 화살이 잔잔한 연못위를 날으는 그림을 볼수 있다.

「하나의 화살을 쏘며 전 인생을 살라」한마디 남기고 그가 쏜 화살과 같이 영원히 날아가 버린 일본궁도의 대가 안자와·헤이지로. 그는 훌륭한 동양인이다.

「하나의 인생, 하나의 화살」이 얼마나 간단한 말인가?

그는 평생을 영원을 향한 하나의 화살을 쏘기 위하여 초인적인 인내와 배움의 자세로 홀로 가난히 살았다. 가난하기에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았고 홀로 있기에 자신의 노예가 될 수 없었다.

조선의 중 사명당은 죽기전 제자들을 불러놓고 「지수화풍(地水火風) 사대로서 거짓 합한 이 물건이 이제 참된 근원으로 돌아가려 하는도다. 어찌 번거로이 왔다 갔다 하여 이 꼭둑각시와 같은 몸뚱이를 수고로이 할까부냐. 내 이제 적멸의 기쁨을 나누려하여 크게 대화에 순응코자 함이로다.」했다 한다.

죽음을 눈앞에 둔 인간으로서 어쩌면 이렇게 여유가 있을까. 참으로 홀가분한 마음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죽느냐, 사느냐」보다는 「COKE을 마실까, PEPSI를 마실까」가 더 중요시된 세상이다. 그러기에 북미의 우리 젊은이들은 마약과 Sex와 술 속에서 한없이 자유를 향해 몸부림치면서도 누구보다도 더 「인간적」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중에 「나와 이태백이와 다를게 뭐 있소?」하는 자가 있다면 「까불지 마!」 한마디 밖엔 할말이 없다. 깃털을 다 잃어버린 새와 날으는 화살과는 비교도 될수 없다. 현대에 사는 우리 젊은이들이여,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들을 외면하고 있다. 배움이 없이 어떻게 자유로와질 수 있겠는가? 어쩌면 우린 이 자유가 무엇인가 깨닫고자 이땅에 태어난지도 모른다. 한번쯤 생각해봄이 뜻있는 일일 것이다.

한강국씨 1위, 72점
라이온즈 골프, 75명경합

토론토한인 라이온즈클럽 주최 제2회 친선골프대회에서 한강국씨가 72점으로 그로스 1등을 차지했고, 2등은 75점의 최상수씨, 3등은 79점의 임중남씨에게로 돌아갔다.

지난 18일 상오11시 부터 리치몬드힐 골프 클럽에서 75명의 한인 골퍼들이 경합한 이번 대회에서 라이온즈클럽은 대회장에서 회원들이 준비한 김밥을 팔거나 $35 참가비에서 나온 수익중 총경비를 제외한 $1,200을 봉사기금으로 확보했다고 21일 서준경회장이 밝혔다.

이날 대회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그로스 TOP 10
한강국, 최상수, 임중남, 강경하, 정 용, 김진기, 박상남, 김현모, 김종욱, 최호영

▲넷트 A조 1위 정 용
2위 강경하
3위 김진기
B조 1위 강태홍
2위 김형도
3위 김진형
C조 1위 함효상
2위 이승훈
3위 이영만
니어리스트 조한철
안 덕
롱게스트 조기연
어네스트 이 억
럭키세븐 이기천

〈여행사〉

신세계여행사	536-2155
서울여행사	535-6004
제일여행사	535-2377
북미여행사	366-0960
천우여행사	928-3335

실명소년 소송제기
수업중 친구 장난으로 다쳐

수업중 같은반 학생이 고무줄총으로 쏜 페이퍼·크립(종이물리개)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이토비콕 거주 소년이, 이토비콕교육위원회, 사고를 낸 학생, 당시 교장과 선생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토니·맥큐씨는 사고 당시인 5년전 1978년에 15세였다. 그는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해 다른 눈마저 다쳐 완전실명에 이르렀다고 담당 변호사인 존·맥레이씨가 20일 온타리오대법원 배심원들에게 진술했다.

맥큐군과 페이퍼·크립을 쏜 존·스튜워드군은 사고당시 케일러·맥케이고등학교 9학년으로 과학실험중이었다.

"토니는 한참 필기를 하고 있는데, 존이 이름을 불러 쳐다보는 순간 낚시바늘 같이 꾸부린 크립을 쏴 눈에 정통으로 맞았다." 맥큐군은 나중에 수술을 받았으나, '실명했다'고 변호사는 설명했다.

"스튜워드씨는 문제아로 다른 이토비콕학교에서도 나쁜짓을 한 사실이 있다. 그는 싸움질을 잘하고, 품행이 단정치 못하며, 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학교가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따라서 수업시간에 질서와 규율을 유지시키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실명한 맥큐군은 목수나 전기기술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실명으로 그 꿈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어 "그의 전생애가 크게 달라지게 되어 이같이 제소됐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533-2361

추석대공연

오리엔탈팔레스 8 주년기념

여러분의 민요가수
최정자 특별초청쇼

기간 : 9월23일(목) 부터 2주간

추석을 맞아 교민여러분께 가수 최정자를 선보입니다.

친구·가족동반하시고 흥겨운 하루를 즐겨주십시요.

회트곡 :
처녀뱃사공등 수백곡

경로잔치에도 노년들을 위해서 가수 최정자양이 출연,민요를 선사할 것 입니다.

새로운 악단 : FIREBIRDS

FIREBIRDS

529 BLOOR ST. W. TOR.

영업시간 :
오후6시~새벽1시

예약 : 533—3545 • 533—1500

5분 인터뷰

야채도매상 곽덕렬씨

"한인소매상 급격 증가 권리금도 오를듯"

교포 경영 야채상점들이 늘고 있다. 미국교포들이 많이 하는 청과상과 같은 야채상점은 일손이 많이 가고, 상품이 시간제약을 받으며, 새벽에 일찍 도매시장에 가야하는 단점때문에 큰 인기를 못 끌었으나, 마진이 40~200%나 되고, 소자본으로도 구입 경영이 가능하며, 권리금도 아직까지는 버라이어티상점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아 교민간에 인기를 더 해가고 있다고 한인유일의 도매업자 곽덕렬씨는 18일 말했다.

한국일보: 교포 야채상점이 늘었는가?

●곽: 5년전 내가 시작할때에는 도매시장서 만나는 교민은 2~3명 정도였으나, 요즘은 60여명은 될 듯하다.

한국일보: 그렇게 증가한 이유는?

●곽: 잔손질이 많고 제때에 팔지 못하면 버려야 하는등의 제약이 있는 대신 이윤율이 높고 소자본 운영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내경우로는 일반 상점과는 달리 채소, 과일등 생물을 다룬다는 점이 좀 더 인간적이라 흥미가 있다.

한국일보: 최근 도매업을 시작하고 느낀점은?

●곽: 많은 양의 상품을 취급하다보니 상한 것도 섞여서 소매상에 배달되는 수가 있다. 이런때는 곧 연락해주면 보상해 드린다. 또 차가 보자라 제때에 배달을 못할때가 있으므로 교민소매상의 이해를 요망한다. 일반상품과는 달리 야채도매값은 구입자가 누구냐에 따라 파는 가격이 달라지는 때가 많다. 이 때문에 같은 물건이라도 내가 사는 가격은 훨씬 싸며, 나를 이용하는 교민소매상은 새벽에 시장가지 않아도 되고 가격도 저렴하게 물건을 공급받는다.

한국일보: 부탁 말씀은?

●곽: 조만간 야채상점 권리금이 버라이어티상점처럼 오를 것이다라고 말한다. 경영자들은 질이 변한 상품은 과감하게 버려 항상 신선하고 싱싱한 물건을 잘 진열해야 한다. 야채상에서 매상을 좌우하는 큰 요소가 진열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제때에 물을 뿌려 준다든지 생물이라는점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할것이다. 실상 많은 사람들이 버라이어티 가게에서 채소가게로 전향한예가 많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소가게하는 재미가 버라이어티가게보다 재미있다고 말하고 있다.

●〈곽씨가 운영하는 소·도매상〉가게안의 큰 쿨러에는 도매물건이 꽉차있다.

노산·이은상씨 작고 시와 저술의 한뉘

(서울)시인 노산 이은상씨가 18일새벽 서울의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9세.

1903년 경남 마산에서 출생한 고인은 시창작과 사학연구를 통해 한국의 민족주체성을 앙양시키는데 일생을 바쳤다.

노산은 그동안 2천여편의 시와 40여권의 저서를 남겼으며, 지난 7월 출간된 마지막 작품「기도」를 통해 남북통일이 조속히 성취되기를 기원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박삼순(43)여사와 1남3녀가 있다.

전두환대통령은 20일 오후 고인의 자택에 마련된 빈소에 들러 유족들에서 조의를 표하며, "우리 한국인은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金聖鍾작 〈72〉

어떤殺人 ⑲

모세(毛世)는 현관에 떨어져 있는 돈봉투를 구두 끝으로 찼다.

「이건 지[illegible] 수 없어?」

문자는 현관으로 내려서서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그것을 모세에게 바쳤다. 모세는 봉투를 받아 호주머니 속에 넣은 다음,

「[illegible].」

하고 닫혔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다.

그때 주석에 쭈그리고있던 두봉이 벌떡 일어섰다. 그의 오른쪽 눈두덩은 시퍼렇게 부어올라있었고 코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달려가 모세의 팔을 잡았다.

「선생, 내가 몰라보았읍니다. 용서하시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렇게 가시면 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당황케 하기에 충분한 돌변한 태도였다. 문자조차도 오빠의 그런 태도에 놀라고 있었다.

「이러지 마. 난 가야해.」

모세가 뿌리치자 두봉은 더욱 집요하게 매달렸다.

「잠깐만 앉았다 가십시오. 기분나쁘게 한 것 정말 사과드립니다. 드릴 말씀도 있고하니 잠깐만 앉았다 가십시오. 부탁 합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난 당신하고 한 이야기가 없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럽니다.」

모세는 피로 뒤범벅된 두봉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거실로 올라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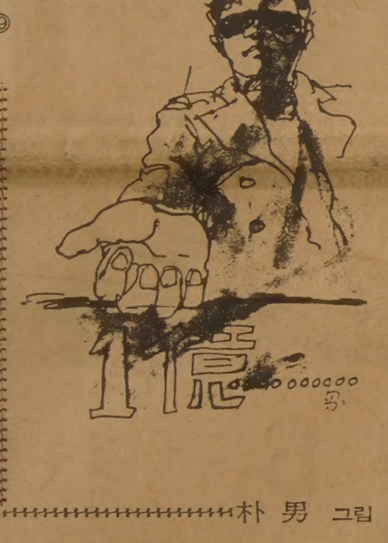
두봉은 모세가 소파에 앉는 것을 보고 얼른 화장실로 들어가 얼굴을 씻었다. 휴지를 말아 콧구멍을 틀어막은 다음 잠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험하게 일그러진 얼굴이 거기에 있었다.

거실로 나온 그는 누이와 함께 모세 앞에 앉아 통사정을 했다.

「선생, 오죽하여야 이 오래비가 이런 일에 끼어들었읍니까. 제 누이를 불쌍히 여겨서 오늘 이것으로 끝내 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제 누이하고 무슨 원수진 일도 없지 않읍니까. 자식까지 있는 몸인데 그래도 가정은 지켜야하지 않겠읍니까.」

모세의 얼굴에 냉소가 떠올랐다.

「그럼 분명히 말해두지.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해. 알았어? 시작이란 말이야.」



朴 男 그림

또 "일주일안에 일시불로 1억원 내라…"

「선생, 살려주십시오. 선생까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없는거 아닙니까. 아주 딱 부러지게 얼마를 내놓으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그편이 속 편하겠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내주시는 것이 피차에 좋지 않겠읍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못난 제 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라고…? 흥, 난 그런 말을 제일 싫어해. 하여간 좋아. 나도 자주 만나는게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받기로 하지.」

모세는 잠시 머리를 굴리는 것 같더니 말했다.

「내가 필요한건…1억이야. 그것도 일시불로. 기한은 일주일. 그 이상은 안돼.」

엄청난 금액에 두봉도 문자도 너무 기가 막혀 잠시 멍한 표정이 되었다.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 입니다. 지금 돈이 바닥이 난판에 1억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입니까. 누이한테는 지금 돈이 없읍니다. 봐주십시오.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금액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1억이란 상상도 못할 금액입니다.」

모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좀 무리가 되긴 하겠지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야.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어. 잘 생각해봐. 절대 비싼 금액이 아니야.」

成形구설수에 오른 미스·아메리카

◆지난주말 미스아메리카로 선발된 미스캘리포녀 데보라·머펫양이 몇차례 성형수술을 했다고 한 신문이 폭로, 화제가 되고있다. 「달라스 모닝뉴스」지는 15일자에서 머펫양이 이미 텍사스의 미인대회에 12번이나 응모했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으며 미스캘리포녀대회에 출전하기 전 여러가지 성형수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머펫양의 어머니는 1980년 단지 코격막수술을 한것밖에 없다고 반박. 위사진은 1980년 미스텍사스대회에 응모했을당시 사진, 아래는 이번 미스아메리카당선직후 모습이다. 〈달라스— 〉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 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전문.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243-9544
1391 WESTON RD

훼밀리·닥터 (의사 왕운린)
(B) 968-1543·(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월~금: 오전 10시~오후 7시
토: 오전 11시~오후 3시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젊은이들을 위한 특별 성회

I FOUND IT!
나는 찾았네!

●한국대학생 선교회 창설 (C.C.C)이사장
●국제대학생 선교회 동아시아 본부대표
●EXPORT '74 대회장
●80년도 세계복음화대회 한국 예수총력 전도 준비위원장

강 사: 김준곤 목사
장 소: 한인장로교회 (1183 Davenport Rd.)
시 간: 9월28(화), 29(수), 30(목)—
오후6:30~7:00 SING ALONG
오후7:00~ 부흥집회
9월30일—(오후 1:00 leadership trainning

주최: K.I.V.F., SOWERS, Y.F.C
후원: 교역자협회·교사연합회·장로연합회

定期국회 20일開會

어제 召集공고 會期 12월18일까지 90일

與·野, 政治·經濟현안에 爭點
10兆원 규모 豫算案등 처리

제114회 정기국회가 오는20일하오2시 소집된다고 공고했다. 오는 12월18일까지 90일간의 會期로 열리는 이번정기국회 — 회에서는 10조5천1백70억원의 새해예산안을 비롯, 정부와 각정당에서 제출한 1백60여건의 각종法案을 심의 처리한다.

11代국회에 들어 두번째맞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與黨은 경제안정과 국민부담輕減 및 庶民生活보호등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추려는데 반해 野黨측은 작년 정기국회에서부터 계출해 놓고있는 國會法개정안과 언론기본법개정안, 地方自治制실시를위한 법안등 소위 政治議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있어 與野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에서는 이러한 정치議案의 관철을 지난6월16일의 靑瓦臺회담과 결부시켜 與黨측에 촉구하고있으며 정치의안이외에도 최근의 각종 경제조치와 稅制改革등 경제문제도 주요爭點이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民正黨과 民韓黨은 20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대책을 협의한다. 한편 民正黨의 李鍾贊, 民韓黨의 林鍾基, 국민당의 李東鎭총무등 3黨총무들은 이날 會同, 12월2일까지의 議事日程을 결정하고 野黨이 제출한 政治議案심의는 다음에 再論키로했다.

이날 회담은 그동안 異見을 보여왔던 本會議의 對정부질문 議題는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등 3개로 확정하고 발언자수는 各議題別로▲民正3▲民韓2▲국민1▲議政同友會1명씩으로 배정했다.

또한 이날 회담에서는 지난해와는 달리 일반常任委에서도 81년도 決算, 예비비지출 상황, 82년도 追更, 8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측의 설명을 들은뒤 정책질의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3黨총무들은 ▲정부의 예산안 국회제출 法定時限인 10월2일까지 예산의 附隨법안도 함께 제출토록 행정부측에 촉구키로하며 ▲常任委활동의 개시와함께 계류議案을 심의하며 ▲12월3일 이후의 본회의와 常任委에선는 이 싯점까지 처리못한 계류議案을 집중 심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총무회담에서 확정된 議事日程은 다음과 같다.

▲9월20일=개회식▲21일=會期결정및 국무총리, 감사원장 임명동의및 豫決委구성결의안처리▲22~23일=議員外交활동보고(18개班)▲24~29일=常委활동(계류案件 심의)▲30일~10월3일=休會▲4일=국무총리施政연설▲5일=各교섭단체대표연설▲6일=豫決委구성▲6~13일=對정부질문▲14~30일=常任委활동▲22~30일=豫決委(81년도決算및예비비, 82년도 追更심의)▲11월1~2일=追更예산안, 決算, 예비비지출등 일반案件처리▲3~27일=常任委·豫決委▲29일~12월2일=83년도 예산안, 법률안, 일반안건처리▲3일=常任委 再開(이후 일정은 未合意)

代表질문자 內定

오는10월5일로 예정된 이번정기국회의 本會議 對정부질문에나설 각정당의 代表연설자로 民正黨은 陳懿鍾정책위의장, 民韓黨은 李泰九부총재, 국민당은 李萬燮부총재를 각각 內定했다.

10월2일 임시公休로
국무회의 議決

정부는 秋夕다음인 오는10월2일을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키로 17일하오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관계자는 이번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금년 1회에 한한 것이며 앞으로의 공휴일 지정문제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朴寶晥총무처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국무회의는 매주 木요일 상오10시30분에열고 차관회의는 火요일(하오3시) 1회만 열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세계經濟 위기에 全대통령 자신감갖고 克服해야"

【蔚珍=尹國炳기자】全斗煥 대통령은 17일 『지금 세계는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주된원인이지만 국제정치질서의 混迷, 東西진영의 군사력 불균형등이 겹쳐 危機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험악한 정세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기위해서는 경제 외교 안보등 각분야에 걸친 정세변화를 면밀히 분석, 전국민이 화합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낮 蔚珍간 도로확장및 포장공사 蔚珍郡廳에서 국회건설위원, 건설관계자, 주민대표등 40여명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失業率및 공장倒産率증가, 개발도상국의 購買力부족,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대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등으로 위기와같은 상황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全대통령은 『우리경제도세계경제의 영향을받아 어려운것이 사실이나 상대적으로선진국에비해 나은편』이라면서 『따라서 국민모두가 자신감을갖고 악조건을 우리에게유리하게 활용할수있도록 노력하면 이경제위기를 극복,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수있을것』이라고 역설했다.

技能 경기大會 종목 다양화를

【淸州=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 17일 『技能경기대회를 국제대회入賞유망종목에만 치중하지말고 개발도상국에 진출할수있는 기능을경기종목으로 선택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이대회 참가선수들에게 해외진출의 우선권을주도록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淸州기계工高에서열리고있는 제17회 전국技能경기대회에서 대회장인 李憲基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대회개최현황을 보고받은뒤 이같이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번 아프리카, 캐나다 순방에서도 기술이있고 확실한 계획이 있으면 진출의 가능성이 많을것』이라고 말하고 『이를위해서도 실질적으로 우수한 기능인력을 적극 양성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西獨聯政붕괴
슈미트首相 信任투표후 곧 總選

【본=AP聯】헬무트·슈미트 서독수상은 독일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과의 연정이 붕괴되었으며 곧이어 새로운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17일 말했다고 사회민주당 대변인이 이날 발표했다.

크노트·테르크 사회민주당 대변인은 슈미트수상이 곧의회에 신임투표를 요구할것이며 이투표에서 의도적으로 패배할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자유민주당 의원들은 투표에서 자신들은 슈미트수상을 지지하지 않을것이라 말했다.

현행 독일 헌법에 의하면 슈미트수상은 칼·카르스텐스대통령에게 21일안에 의회해산을 요청할수있고 이경우 60일이내에 총선이 실시된다.

鄧小平 平壤방문
지난4월 極秘裡에 胡와

【北京AP聯】中共黨總書記 胡耀邦은 16일 北傀 金日成을 위한 환영연회에서 자신과 鄧小平이 지난 4월 北韓을 비밀리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胡耀邦은 이날 金日成일행과 대부분의 중공고위지도자들이 참석한 이연회에서, 자신과 鄧이 金日成의 초청으로 平壤을 방문, 양측 黨지도자들간의 『빈번한 교환방문』의 방안을논의했다고말했다.

관측통들은 金日成의 70회 생일을 축하하기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같은 胡와 鄧의 北韓방문이 중공과 북한간의관계개선 의도를 보여주는『극적인 조짐』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北京외교가에는 이들의 平壤방문설이 나돌았으나 중공과 북한은 이를 은폐해왔다.

社會漫評

참새가 허수아비 알기를 허수아비로 아는 세상…

地平線

세계에서 언론자유를 가장 많이 누리는 나라로 흔히 미국이 꼽힌다. 수삼년전 워싱턴 포스트紙는 白堊舘의 압력을 무릅쓰고 후세인 요르단王이 美CIA資金을 받아왔다는것을 보도하여 세계톱뉴스를 장식했다. 하지만 이런 미국신문들도 지난 1·2년 사이, 電子시대의 TV에 밀려 폐간된것이 한둘이 아니다. 워싱턴 스타, 필라델피아 불리틴, 필라델피아 저널, 시카고 데일리뉴스紙등이 終刊의 비운을 내 이름들이다. ▼그런데도 投資정신에 투철한 미국사람들은 TV에 도전하는 신문을 새로 창간하는데 또한 주저치 않는다. 개척자적 모험심이 아직도 미국사람들의 가슴에서 꺼지지않았다는 증좌일 것이다. 지난15일에 워싱턴서 창간제1호를낸 신문의 이름은 「USA TODAY」이다. 異色的인 제호다. 이 「USA TODAY」는 TV만이 아니라 既成권위지에 대해서도 도전장을 보냈다. 우선 TV에 대해서는 TV가 시청자들에 가꾸어놓은 영상을 파먹어 들어가는 메로 「USA TODAY」는 화살을 겨냥한다. ▼창간호에서 독자들이 컬러TV의 화면을 연상하도록 만들기위해 선명한 컬러사진을 크게싣고 제목활자도 굵직굵직하게 [illegible] 았다는 것이다. 뉴스에 [illegible] 된 지도와 일기예보의 도표도 크게 실었다. 첫날 워싱턴市와 東部5개주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신문의 가두판매기마저 TV모양을 닮고있다는 보도다. 敵의 장점을따서 敵陣으로 쳐들어가는고차원의 對TV 작전을 편것같다. ▼40페이지 창간호는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紙와는 판이하게 다른 편집태도를 반영했다. 이른바 권위지들의 고정관념을뛰어 넘었다. 15일자 미국권위지들의 1면톱뉴스가 대체로 레바논의 게마옐爆死사건이었는데 「USA TODAY」는 그레이스·켈리王妃의 死亡을 머리에 올렸다. 게마옐爆死기사는 9페이지의 세계뉴스欄으로 밀쳐졌다. 이신문은 국내외 정치뉴스보다도 비즈니즈·스포츠·예술·여가선용·씨방뉴스·생활소식등을 권위지들 보다도 더비중있게 소상히 다루었다. 경제面도 「돈面」이라고 불려졌고 기사는 일반서민생활과 직결된 생활측면에 重點이 두어졌다. ▼존·컬리편집국장은 미국의 권위지들이 독자의 관심소재를 외면하고 전문가적권위라는 착각에빠져있다고지적하면서 「USA TODAY」는 독자의 관심과 흥미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한다. 「USA TODAY」 창간호 20만부는 그날 상오 9시께 [illegible] 매진되어버렸다는 소식이다. 5년후에 全國紙로서 전역에 2백30만부이상을 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한다. TV에 도전하는 저에, 고정관념에서벗어나 독자에게 접근하려는 창의성에 우선 박수를 보낸다.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서울택시組合 (朴文奎이사장外 法人조합원 일동外) 3千2百12萬원

全紡(株) (金龍周회장 임직원 일동) 1千3百60萬원

<17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육군 맹호부대 장병 일동		7백1만원
시티즌時計	河源大대표 外	5백85만원
육군이기자부대 장병들		5백83만원
國際藥品 임직원 일동		3백 8만원
韓逸鍛造·록켄자	洪淳模사장	3백 만 원
龍山女中	鄭再薰교장 外	2백89만원
서울경복국교	심수근교장 外	2백73만원
京殷産業	李義太회장 外	2백12만원
서울휘경국교	정진명교장 外	1백82만원
서울泰陵중학	成元模교장 外	1백77만원
서울新林女中	朴魯鶴교장 外	1백62만원
서울眞善女中	宋善會교장 外	1백61만원
서울면중국교	이광섭교장 外	1백52만원
한국가구공업	최기곤代表 外	1백40만원
韓國海外建設	成百詮대표 外	1백31만원
培花女中	林承龍교장 外	1백26만원
豊文女中	廉文鉉교장 外	1백10만원
三千里자전거	金鍾默사장 外	1백 4만원
世運商街	가棟 새마을推進會 外	1백 만 원
서울경동국교	한희남 校長 外	92만원
서울계성국교	박상일 校長 外	88만원
서울당중국교	박용인 校長 外	84만원
서울중계국교	이병숙 校長 外	83만원
弘益大 師大附中		66만원
慈行會	李方子 회장	50만원
디자이너앙드레·金		50만원
새永登浦로타리		50만원

▲서울택시運送事業組合理事長 朴文奎씨외 法人組合員一同=3천2백12만1천원
▲全紡(株)회장 金龍周씨外=1천3백60만5천원
▲육군맹호부대 장병일동=7백1만4천6백58원
▲시티즌時計(株) 대표이사 河源大씨외 임직원일동=5백85만7천5백6원
▲육군 이기자부대 장병일동=5백83만4천4원
▲國際藥品工業(株) 임직원일동=3백8만7천원
▲韓逸鍛造·록켄자사장 洪淳模씨=3백만원
▲龍山女子中學校(교장 鄭再薰) 교직원및 학생일동=2백89만4천7백95원
▲서울경복국교(교장 심수근)전교생 (대표 6년 장정균·김영준·홍승혜·인솔교사 민영기·조종구) 및 교직원일동=2백73만5천9백83원【소년한국일보접수】
▲京殷産業(株)대표이사 회장 李義太씨외 임직원일동=2백12만3천원
▲서울휘경국교 (교장 정진명) 전교생 (대표 6년 조현미·김승한·김희수·인솔 교감 장 용·교사 양점복)및 교직원일동=1백82만8천4백50원【소년한국일보접수】
▲서울태릉중학교 (교장成元模) 교직원및학생일동=1백77만4천3백10원
▲서울新林여자중학교 (교장朴魯鶴) 교직원및 학생일동=1백62만9천5백92원
▲眞善女子中學校 (校長宋善會) 교직원및·在學生一同=1백61만9천3백45원
▲서울면중국교 (교장 이광섭) 전교생 (대표 6년 이지훈·최규현·이주혜·인솔 교감 최홍진) 및 교직원일동=1백52만9천2백32원【소년한국일보접수】
▲한국가구공업(株) 대표이사 최기곤씨외 임직원一同=1백40만원
▲韓國海外建設(株) 대표이사 成百詮씨외=1백31만원
▲배화여자중학교 (교장 林承龍) 교직원및 학생일동=1백26만7천2백60원
▲풍문여자중학교 (교장 廉文鉉) 교직원및 학생일동=1백10만2천3백원
▲三千里자전거공업(株) 사장 金鍾默씨외 전종업원一同=1백4만원
▲世運商街가棟市場淨化새마을推進會(회장단 김창식씨, 김종식씨, 김진국씨) 상인일동=1백만2천원
▲서울경동국민학교 (교장 한희남) 전교생 (대표6년 최종욱·김연수·5년 정명희·인솔교사윤종철) 및 교직원 일동=92만2천8백20원【소년한국일보접수】
▲서울계성국교 (교장 박상일) 전교생 (대표 6년 신현영·유승후·조주현·5년 김정현·인솔교사 김정기) 및 교직원일동=88만2백33원【〃】
▲서울당중국교 (교장 박용인) 전교생 (대표 6년 이주남·5년 김원철·인솔교사 장루호) 및 교직원일동 (3차분)=84만9천75원【〃】
▲서울중계국교 (교장 이병숙) 전교생 (대표 6년 조진용·최현석·2년 임경묵·인솔교사 조승현) 및 교직원일동=83만2천8백42원【〃】
▲弘益大學校 사범대부속중학교 (교장姜大湖) 교직원및 학생일동=66만8천2백81원 (2차분)
▲慈行會회장 李方子여사=50만원
▲디자이너 앙드레金씨=50만원
▲새영등포 로터리클럽=50만원

◇金龍周씨

◇河源大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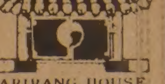
◇서울 택시 운송사업조합 朴文奎 이사장(左)이 한국일보 曺斗欽 편집국장에게 성금을 전달하고있다.

◇龍山女中학생대표들.

◇世運상가 가동 새마을추진회 회장단.

◇安牧丹씨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미시사가 한글학교

학생모집

미시사가 한글학교에서는 1982-83학년도 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유치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중고등반 각15명 내외
등록및 개강일시 : 1982년10월 2일(토요일) 오전 9 시
등록장소 : QUEEN ELIZABETH SENIOR SCHOOL 60 South Service Rd. (Q. E. W. 와 Hwy 10의 남동쪽)
수업기간 : 1982년10월 2 일~1983년 6 월18일(32주간)
수업시간 : 매주토요일 오전 9 시~오후 1 시
수업과목 : 한글, 음악, 미술, 체육, 영어
문 의 처 : Mrs. 리 ☎ 274-6127 Mrs. 김 ☎ 275-5974
Mrs. 최 ☎ 827-7057

미시사가 한글학교 교장 김영자
이사장 이춘수

인사말씀

땀의 결실을 얻는 중추가 우리들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차제에 경애하는 교민여러분의 가정마다 신의 가호와 아울러 주 안에서 평강하옵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금번 소생은 뜻한바 있어 거북이선물센터(전 대표 이정석)를9월20일자로 인수받아 현 상태위에 새로운 물품을 더욱 구비하여 교민여러분들께 친절과 신용본위에서 봉사코자 하오니, 성원하여 주시옵고 많이있는 하교와 편달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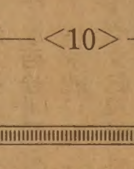
82년 9월 20일

거북이선물센터 대표 황은심

개업파티
82년9월25일(토) 하오4~9시
많은 교민께서 참석하셔서 더욱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617 BLOOR ST. W. TOR. ☎ : 535-2143

한글세대作家 尹興吉의 「歪曲列島」縱橫記

내가 처음본 日本 <10>



일본도 역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이며, 어디나 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좋은점과 나쁜 점이 섞여 있게 마련이다.

이번에 일본을 여행하면서 내가 받은 명함이 59장이다. 여행을 위해 난생처음 찍은 내 명함은 75장이 나갔다. 인사를 하고는 명함을 건네지 않았으니까 나는 보름 동안에 백명 이상을 사귀고 대화를 나눈 셈이다. 짧은 기간에 너무 벅찬 여행이라서 주마간산의 혐의를 벗을 수는 없으나 나는 좋은 친구를 많이 얻은것을 무엇보다 다행으로 여기며, 앞으로의 내 작업을 위해서 보람 있는 체험이었다고 자위한다.

不恥下問

그림 鄭駿溶

여행을 끝마칠 무렵에 내 눈에 비친 일본의 인상은 잘 정돈 되고 관리되는 나라구나 하는 것이었다. 비행기에서 일목요연히 내려다 보이는 농촌의 경지정리, 도시의 치밀한 교통망이나 한껏 미관을 살린 간판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그랬다. 일본인들의 질서의식과 친절은 선진국다와 보였다. 새벽녘에야 술자리가 파해서 혼자 숙소로 돌아갈때 인적 없는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보이는 신호등과 차선 지키기의 철저함은 마냥 답답하게 느껴질 지경으로 고지식했다. 그 젊은 러시아워 때도 마찬가지여서 내가 탄 차가 길을 잘못접어들어 집을 찾느라고 허둥거리며 지체하는 동안 삽시에 장사진을 이룬 뒤차들은 뿡빵거리며 신경질 부리는 일 없이 느긋이 기다려주는 것이었다.

줄서기는 일본의 어딜 가나 흔히 보는 풍경이다. 일본인들 틈에 섞여 나도 지하철역에서 줄을 섰다. 열차가 도착해서 문이 열리고 일단 차내로 들어서자 그토록 얌전하던 줄이 갑자기 허물어지면서 사람들의 동작이 기민해졌다. 빈 자리를 차지하려는 순간 내 뒤를 바짝 따르던 중년신사가 내 엉덩이를 슬쩍 밀면서 먼저 앉는 바람에 나는 하마터면 장거리를 서서 갈뻔했다. 그러나 나는 얼른 정신을 가다듬고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밀친 다음 간신히 그 옆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었다.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을 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여자와 남자로 양분하는게 그 첫째요, 독서하는 사람과 조는 사람으로 양분하는 것이 그 둘째다. 일본의 직장인들이 전철속에서 짧은 수면으로 시간을 버는 모습은 아주 재미있다.

옆사람한테 기대거나 무버거리거나 하는 따위의 꼴불견으로 신세짐이 전혀 없이 그들은 안존한척하면서 또는 깊은 상념에 잠긴듯이 단정한 자세로 조는데 익숙하다. 나는 옆에 앉은 예쁜 아가씨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도 무방하다고 마음을 너그러이 먹고는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려 보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끝내 자세를 흐트리지 않은 채 꼿꼿이 앉아서 졸음으로써 나를 실망시켰다. 알맞게 졸고나서 그녀가 눈을 뜬것은 정확히 자기가 내릴 역이었다.

일본인들의 독서열은 사실 경이에 가깝다. 앉은 사람이나 선 사람이나 뭔가 읽을거리 하나씩은 다들 들고 있다. 책이 없는 사람은 하다못해 신문이라도 열심히 읽는다. 준비해간 선물이 다 떨어져서 방문한 사람한테 내 소설책 「에미」라도 주려고 30여군데의 서점을 뒤지고 다녔는데 어느곳이나 다 꽉 들어찬 손님들로 발디딜 틈도 없었다.

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만이 아니고 가정주부와 노인들도 많이 보이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일본 역시 요즘 출판불황이라지만 책하고 인연이 깊은 내 눈에는 그 불황이 그렇게도 부러울 수가 없었다. 일본인들의 폭넓은 독서가 일본문화의 바탕이 되고 그 바탕이 결국 그들 국력의 근간을 이룬다고 생각하면서 백년의 역사를 가진 新潮社 편집회의에서 당장 눈앞의 일이 아닌, 앞으로 5년내지 10년후의 출판계획을 놓고 진지하게 토의하는 광경에 나는 전적으로 수긍이 갔다.

초대받은 자리에서 내온 안주이고 먹어본 일본 음식 가운데 특히 인상에 남는 것들이 있다.

하나는 표주박 모양의 가지 요리인데, 커다란 가지를 두쪽으로 잘라서 떠 먹기 편하도록 속을 잘게 저민 다음 양념을 넣어서 삶아낸것

文學작품에서도 돋보이는 섬세한 包裝術

이다. 맛은 둘째치고 우선 그 모양이 내 시선을 잡아끌었다. 가지의 껍질을 그릇으로 이용하는 조리 솜씨는 과연 일본인다운 재간이었다.

마찬가지로 바다가재의 껍데기를 그릇 대용으로 해서 내놓은 요리가 그 두번째다. 모양부터 아름답고 신기하거니와 그 특이한 형식에 힘입어 맛마저도 별난 듯이 느껴졌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 속담을 일본인들은 더 잘 알고 있는것같았다. 풀코스의 일본 정식에 나오는 그릇들이 각 코스마다 그 모양과 빛깔이 다른것도 기억할 만했다.

일본 과자를 선물로받은 일곱살짜리 내 딸이 별것도 아닌 과자는 후딱 먹어치우고 아름다운 상자는 아까와서 소꿉도구로 오래도록 애지중지하는 걸 보았다. 투박한 오지그릇에다 음식을 푸짐하게 담아 먹는 걸 멋으로 아는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겉모양을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일본인의 그 탁월한 포장술에 더러 반발을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같은 물건이라도 아름답고 신기한 형식을 통하여 한껏 돋보이게 만들어내는 일본인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오늘날 그들의 상품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원동력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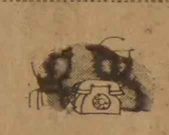
포장 잘하는 일본인의 섬세한 감각은 우리가 좀처럼 다치기 꺼려하는 무위자연마저도 인간생활에 유용하도록 떡 주무르듯이 개조해 놓는다. 자연을 인간속으로 끌어들이는 일본인의 포장술은 그들의 문학작품에도 여실히 나타난다. 그들은 자연을 자연 그대로 인간을 초월하는 존엄한 존재로 가만 내버려두지 않고 마치 인간의 부속물인양 다루어 작중인물의 심리를 묘사하는 하나의 표현수단으로서 갖가지 자연현상들이 치밀한 계산하에 적절히 이용된다. 그런 경로를 거쳐 생산된 일본문학이 오늘날 세계에서 널리 인정받는 것도 부인할수없는 사실의 하나다. 내용만 충실하면 된다는 우리 문학의 질박성에 비추어 보기 좋은 그릇에다 담으려는 일본문학의 특성을 나는 하나의 보완책으로 삼고 싶다.

주마간산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본이 가진 많은 장점들을 만나보았다. 그들은 다른 기회에 다시 이야기하게 될것이며,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로부터 취해야 할 것들은 과감히 취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작가로서 다시없이 귀중한 공부의 기회를 마련해준 일본국제교류기금의 후의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 되지못한 기행문의 연재를 모두 마친다. <끝>

메아리

시골電話



金昌悅 <編輯委員>

대개의 세금과 요금이 월말을 납기로 하는데, 전기와 전화요금은 그렇지가 않다. 월말을 받아 지출을 요량하고, 월말에 공과금을 내고— 하는 사이클을 벗어나, 월중에 떨어지는 전기와 전화요금 고지서는 종종 기일을 놓쳐 가산금을 물리게 한다.

그래서 월말이나 나오는 고지서는 약간의 짜증을 섞어 보게 되지만, 그가운데서도 전화요금 고지서는 유심히 살피게 된다.

달마다 보면, 전기·수도·가스 요금은 정액제나 다름없게 요금이 비슷하나, 전화요금은 들쭉날쭉이 심하다. 한달 건너뛰면 바다 건너 전화걸일이 생기고, 심심찮게 시외전화를 쓰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어떤 달에는 전달보다 3곱, 4곱의 요금이 나온다.

고지서에는 물론 국제전화·시외전화의 요금이 따로 적혀 나온다. 전화번호에 따라 초순·중순·하순등 요금의 납기일이 다르다는 설명도 적혀 있다. 그러니 어떤달의 요금이 잘못나왔다든가, 납기일이 불편하다든가 하는 불평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 이상하다 싶은것은, 시외전화요금의 책정방식 — 통화한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른, 이른바 距離別·時間差制란 요금제도다. 이 좁은 나라에서 이처럼 통화거리를 세분하여 요금을 받아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기는것이다.

손쉽게 체신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시외전화의 距離別요금은 8단계다. 그 첫단계가 30㎞다. 이것을 미국의 14단계, 영국의 2단계와 비교하면, 얼마나 세분되었는가 짐작된다.

이렇게하여 距離가 멀수록 요금은 높게 책정된다. 30㎞까지 한 통화 2백76원인 통화료가 3백㎞에서는 1천4백40원이 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전화요금은 時分制가 없는 시내 度數料, 단거리의 시외전화 요금은 싼데, 3백㎞에 이르면, 우리나라의 통화 요금은, 영국의 7백96원, 미국의 9백44원보다 훨씬 비싸진다.

이 계산은 우리나라의 시외전화 요금제도가 도시에사는 사람보다는 시골에사는 사람에게 박함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처럼 서울이 지리적으로 偏在해있고, 모든기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형편에서, 시골살이의 불리함은 전화요금에도 나타난다는 얘기다.

이 사정은 꼭 서울과의 距離관계에서 만 그런것이 아니다. 시골에 가보면 바로 읍내나 이웃면에 전화를 걸어도 距離別 요금을 내야 한다. 시내度數料보다는 비싸다. 도청소재지인 도시사람보다는, 읍사람이, 읍에 살기보다는 면에 사는 사람이 불리한 요금제도다.

결국 이런 불이익, 그에 따르는 불편을 덜자고 하면, 면에서 읍으로, 읍에서 도청소재지로, 그보다는 서울로 이사가는 것 뿐이다.

설마 전화요금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하랴 싶겠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首都圈인구억제시책의 미흡이 이런데도 나타나있음은 꼭 지적되어야 한다. 어제 閣議를 통과한 首都圈整備計劃法案(본보 17일자 1면) 등이 그 구실을 다하자면, 이 법이 목적한대로의 서울의 인구疏散뿐 아니라, 지방으로부터의 인구流出을 막는 방도가 서야하기 때문이다. 그 길은 먼저 시골에 사는 불이익을 덜는 것이며, 그러자면 시골을 발전 시켜야한다. 지금의 전화요금제도는 그런 요청을 등지고 있는 것이다.

흔히 이르기를 시골의 발전은 공간을 초월한 손쉬운 커뮤니케이션이 있어 비로소 가능하다고 한다. 인공위성을 비롯한 통신기술의 발달은 「距離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로 해서 통신요금의 單價는 더욱 싸지고있는 것이 지금의 추세다. 이것이 한나라의 균형발전을 가능케한다.

그렇다면, 이 좁은 땅덩어리를 多段落로 세분하고 면단위로까지 쪼개서, 시골살이의 불이익을 가중시킬 까닭은 없다. 오히려, 原價主義니 뭐니하지말고, 距離段落을 대폭으로 줄이며, 道단위쯤의 廣域通話圈을 설정하여, 시외전화·시골전화요금을 헐어뜨리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요금제도가 단순해져서 경영에도 도움이된다. 차원높은 政策決斷이 아쉬운대목이다.

嶺·湖南의 距離感을 좁히기 위하여, 東西고속도로를 놓는데서 보듯, 서울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수월케 하는 요금제도는, 「전화요금쯤…」에 그치지 않는 뜻을 지니는 것이다.

베긴의 世界觀

舊約의「約束된 땅」철저 신봉
地上의 과제를 民族 생존에
自衛위한軍事·暴力 적극옹호

親이스라엘 노선을 주창하던 게마옐 死後 12시간만에 이스라엘軍이 西베이루트를 점령한 새로운 국면의 전개를 보며 세계는 또한번 이스라엘의 軍최고통수권자 메나헴·베긴수상에 대해 경악했다.

조국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치의 양보도 하려들지않는 베긴수상의 世界觀은 어떤 것이기에 그렇게 철저할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舊約성경의 영향이 베긴에게 강하게 인각되어 있다고 그의 측근들은 말하고있다. 舊約이야말로 베긴에게 있어서는 민족을 이끌고나아갈 의심할수없는 지침서인 것이다.

9월초 베긴은 점령지에 대한 자신의견해를 밝힐때 요르단강 서안을가리켜 성경상의 명칭인 「유데아」와「사마리아」로 호칭함으로써 舊約에 대한 그의 맹목적인 신뢰를 나타냈고 세계인들은 또 한번 당황하고 놀랐다.

이스라엘의 노년층 정치지도자들은 대부분 점성술을 깊이 믿고있는 숙명론적 인생관을 지니고있다. 특히 염세적인 강박관념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베긴수상 벤구리온, 골다·메이어등이 이세대에 속한다.

이들 前수상들은 시오니즘을 추구하며 사회주의적 이상주의에서 원동력을 얻어 이스라엘의 건국기초를 다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베긴은 유태인의 자위수단으로써 군사·폭력적 입장을 옹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고 그자신도 게릴라운동등 투쟁에의 직접참여로 일관해왔다. 그는 시오니즘의 수정주의자인 셈이다.

베긴은 수상직에 오르기전까지는 언제나 아웃사이더였다. 나치독일의 치하에 있던 폴란드에서 보낸 청소년기부터 그는 자신이 아웃사이더라는 소외감을 맛보기 시작했다.

청년기의 일기장을 보면 베긴은 『인류의 새로운 종족이 탄생했다. 1천8백년간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졌다가 다시 태어난 이 종족은 바로 투쟁하는 유태인이다』라고 자신의 결의를 기록해 놓고있다.

소외된 민족의 운명에대해 끈질기게 저항해온 베긴은 지난77년 수상이되면서 타협을 모르는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했다.

베긴은 정치역학에 있어서 군사적 역할을 중요시하며 강한 개성으로 그의지지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베긴은 그 자신을 유태인의 안전을 위한 대행자로 여기고있다. 그의 측근들은 『베긴이 아직도 동족을 증오와 편견의 희생물이라고 생각하며 유태인학살의 악몽을떨쳐버리지못하고있다』고말한다. 측근들은 또 베긴이 「성실한 유태인」이 되기를 거듭다짐한다고 말하는데 성실한 유태인이란 유태인 상호간의 안전과 신뢰를 존중해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베긴에게 있어서 유태인의 운명을 결정할 정치란 한 정당이나 정부의 책임이라는 차원을 넘어선 민족생존에 귀납되는문제이다.

베긴의 이같은 민족관 국가관에비추어현재이스라엘이 점령하고있는 요르단강 서안의 포기란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조건이 될것이다. 그곳은 베긴에게 있어서 舊約에도 약속돼있고 자신의 정치적 존재이유의 核인 「이스라엘의땅」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스라엘국민들도 대체로 베긴式사고에 동조하고 있고 9월초 레이건의 새로운 中東평화안 거부, 게마옐 폭사후 서베이루트 장악등에 지지를 보내는것 같다. 【朴來富기자】

◇메나헴·베긴

"中東몸살"… 美國의 苦悶

게마옐被殺과 이軍재진입 衝擊

「強力한 레바논」실패…狀況 原點으로
平和案 첫고비 맞은셈

【워싱턴=李文熙특파원】 레이건대통령의 中東평화방안은 게마옐 레바논 대통령당선자의 피살과 이에따른 이스라엘軍의 西베이루트 진입으로 첫번째 험난한 고비를 맞은 것 같다.

물론 레이건행정부는 평화방안을 내놓으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고비를 예측은 했고, 그래서 레이건 자신도 이 방안을 「새로운 출발」이라고 스스로 규정짓기로 했었다.

미국이 예측했던 어려운 고비란 평화에 이르는 단계마다 도사리고있는 문제들이다. 그 첫번째가 이스라엘의 반발이었고, 미국은 이를 아랍을 비롯한 광범한 지지의 획득과 이스라엘측 반발구실의 제거로서, 끝내는 이스라엘로하여금 평화방안의 테두리안에 들어오도록하는데 노력의 역점을두어왔다.

권한이 전국에 미치는강력한 중앙정부를 레바논이 갖도록 하자는노력도 바로 이런 역점의 일환이며, 따라서 게마옐의 피살은 평화방안수행의 초기단계 노력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오게 한것이다.

어떤 의미에선 차질이전에 미국은 우선 크게당황한것같다. 이런당황의 면면은 이스라엘의 진입이있은 15일과, 16일 국무성의 브리핑에 잘 나타나고있다.

첫날 존·휴즈대변인은 게마옐의 피살에대한 개탄과 미국의 레바논지원만을 강조했을뿐, 그많은 질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진입에대해서는 이를비난하거나 철수를요구하는 어떤코멘트도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24시간이 지난후인 16일낮 휴즈대변인은 이스라엘의 재진입은 지난8월20일의 하비브특사에의해 마련된 철수협약의 분명한 위반이며 미국은 즉각적인철수를 요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어쨌든 새로운 변화가 있은지 이틀이 지나서야 미국의 입장은 다시 정리된 셈이다. 즉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레이건의 평화방안을 끝까지 밀고나가겠으며 이런 과정에서 레바논의 주권회복, 국내정세의 안정이 절대선결요건이라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또다시 레바논내에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외국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며, 레바논의 강력한 중앙정부가 레바논내의 화해를 도모할것이며 미국은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어떻게보면 당장의 순간을 넘기고 다시 본래의 골격에 충실하는 입장에 다시 선셈이다.

그러나 이런자세의 재정립에도 불구하고 레이건평화방안수행은 앞으로 상당한 지장을 받을것임은 틀림없다고 많은 관계자들은 분석하고있다. 그것은 게마옐의 피살이란 예기치못한 사태가 우선 당사자들인 中東의관심을 레이건으로부터 다른곳으로 돌려놓았고 실제 전제조건이었던 이스라엘 시리아등의 철수지연은 물론 이스라엘의 재진입이 평화방안수행을 결정적으로 어렵게 할것이며 강력한 레바논 중앙정부수립이 명백하게 후퇴된 이상황에서 방안수행의정체는 불가피하게 감수하지않을수 없기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태의 변화는 미국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켰을뿐아니라 평화의 이니셔티브가 미국에게 있다는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이분석을 따른다면 모든것이 적어도 9월1일 엄격히 말해서 하비브특사의 합의가 이룩된 8월20일 이전상황으로의후퇴를의미할수도있다.

게마옐이 親이스라엘이면서도 피살후 게마옐에 대한 암살집단의 추정리스트측에 이스라엘의 비밀경찰인 모사드가 포함된것은 이런상황과 관련, 흥미있는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안정, 독립정부등을 말해오고는 있지만 실은 이스라엘에 의존하는 레바논정부를 생각해온 입장이었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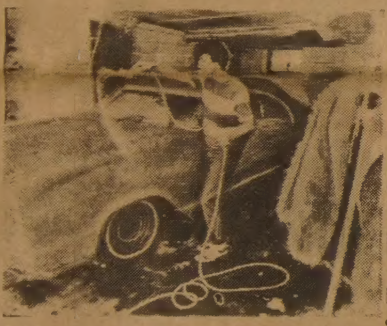
이런 일련의 견지에서 지난6월이래 레바논사태에 관해 침묵을 지켜왔던 소련이 팔레스타인국가를 포함한 蘇의 평화방안을 들고나온것은 그영향력이나 지지여부는 고사하고 시기적으로 거슬리는 것임은 틀림없는것 같다.

팔레스타인국가 구상은 얼마전 페즈의 아랍頂上회담헌장에 포함되어 있는것이다.

미국은 그간 아랍측의 일방적인 지지외에도 관심거리였던 요르단 후세인왕이 요르단—팔레스타인 제휴와 아랍의 이스라엘인정등에 관해 언급한 BBC와의 회견을 크게 환영하며 어떤의미에서는 크게 고무돼있는 상황이었다.

이스라엘의 西베이루트 재진입,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항의와 철수요구가 어떤 행동으로 또는 어떤사태발전으로 나타날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이마당에서 분명한것은 레이건의 평화방안은 그간의 여러 진전과는 관계없이 그가 연설에서 말했던것처럼 그야말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할 좌표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車표면에 잔디 심어

빌·하딩 이라는 한 화가가 자신이 『자연과 메커니즘의대조』라는 이름을 붙인 66년형 뷰익·레자브르 승용차에서 자라고있는 잔디에 물을주고있다. 잔디가 자라고있는 이승용차를 이번주말 캔자스 시티의 백화점에 전시할 계획도갖고 있는 하딩씨는 지난1월 잔디씨를 자동차위에 접합, 싹을트게하여 지금까지 잘키우고있다고. 【캔자스시티(美미주리州) 16일UPI=聯合】

海外토픽

結婚지참금 統一
★사우디, 處女값3만리알로

사우디아라비아 타이프 지역의 한 족장은 이 지역의청년들이 높은 결혼지참금때문에 독신으로 살거나 외국여자와 결혼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결혼지참금을 단일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알·나드와지가 보도.

이에따라 앞으로 미혼의처녀를 둔 아버지는 신랑될 사람에게 3만리알 (한화 6백10만원상당)의 지참금만을 요구하도록 했으며 처녀가아닌 경우에는 3분의1을 특별할인 (?) 2만리알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리야드=AP】

百6歲에 첫病院行
★運轉위한 건강진단 받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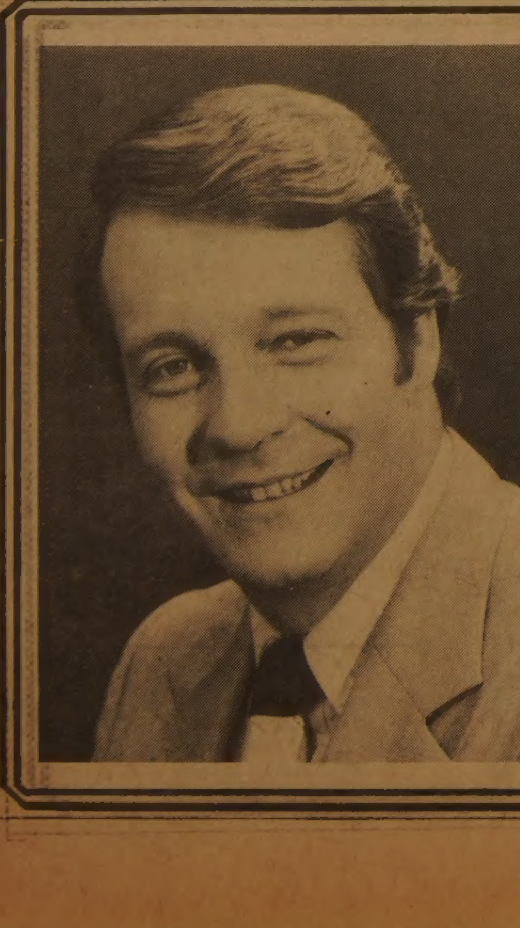
소련의 우즈벡지방에 사는 1백6세의 한농부는 자동차운전을해도 좋다는 건강진단서를 발부받기위해 평생 처음으로 병원을 찾았다.

소련의 관영타스통신이 15일 보도한바에 따르면 무타파·무하마디에프라는 노인은 자신이 속해있는 콜호즈(집단농장)의 면화농장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승용차를 운전하기위해 건강진단서가 필요했던것인데 의사로부터 지극히 양호하다는판정을 받고 운전을 할수있게 되었다는것. 【모스크바=AP】

蘇위성이 人命구조
★飛機추락 캐나다人3명

경비행기로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상공을날다가 숲속에 추락한 캐나다인 3명이 지구궤도를 선회중인 소련 인공위성의 정보제공덕분에 극적으로 구출됐다고 캐나다 국방성이 발표.

국방성 대변인에따르면 조지·힘스커크란 조종사가 친구2명과함께 실종된 아들을 찾기위해 정찰비행을 하던중 숲속에 추락했는데 마침 서부 캐나다상공의 지구궤도를 돌던 소련인공위성이 추락기의 자동조난신호를 포착, 조난지점을 캐나다구조반에 알려주었다는것. 【오타와=聯合】



새 예루살렘 교회

창립 1주년기념 성회

강사 : 데이비드 · 메인스목사(David Mainse)

통역 : 김승환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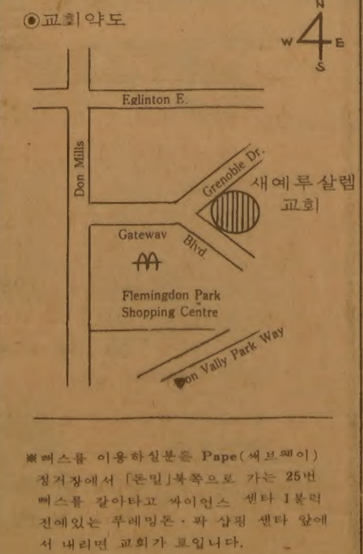
강사소개 : 데이비드 메인스목사님은 캐나다전역과 미국동지에 방영되고 있는 "100 HUNTELY STREET"TV프로그램(GLOBAL TV : 매일 오전9시30분~10시30분)의 창설자이자사회자입니다. 그 외에 "CROSSROADS"와 어린이 프로그램 "CIRCLE SQUARE"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함께하시는 종입니다.

주님께서 테레비선교 할 것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 주심으로 TV방영하는 시작의 동기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목사님은 특히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우리 한인 교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읍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초청합니다. 특히 중·고등·대학생들은 많이 참석키 바라며 꼭 오셔서 모두 구원의 체험과 성령세례 받는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회시간이 토요일(10월9일)하루만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다.

일시 : 1982년10월9일(토)오후7시30분

장소 : 새 예루살렘교회(5 GRENOBLE DR. DON MILLS)

☎ : 429~2685 · 429~1430



※뻐스를 이용하실분은 Pape(써브웨이) 정거장에서 「돈밀」북쪽으로 가는 25번 뻐스를 갈아타고 싸이언스 센타 1불럭 전에있는 푸레밍돈·파 샾핑 센타 앞에서 내리면 교회가 보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 담임목회자 김승환및 교우일동

美육군 特戰司창설
外國서의 暴動대처
그린베레·心理戰부대등 통괄

【워싱턴=聯】 美육군은16일 외국에서 발생하는 좌익폭동과 비정규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위해 그린베레등 특공부대를 통괄한 제1특수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이 새로 창설된 사령부의 사령관인 조세프·러츠준장은 제1특수작전사령부가 오는 10월1일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포트 브래그에서 정식 발족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츠사령관은 국방성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59년부터 쿠바가 공산화된 이래 세계15개국에 親蘇정부가 들어섰으며 다른 21개국이 같은 운명에 처할 위기에 있다고 지적하고 특수부대들은 재래식부대가 투입되기 곤란한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작전수행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러츠사령관은 새로 발족되는 사령부산하에는 그린베레와 심리전부대등이 들어오며 포트 브래그·매사추세츠·파나마및 西獨에 있는 육군특수부대와 워싱턴주에있는 유격부대들도 이 사령부산하에 속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역시 포트 브래그에서 훈련받고있는 반테러진압부대는 이 사령부관하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러츠 사령관은 육군당국은 특수부대원 수를 대폭증강할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으나 현재 약 3천6백명인 그린베레는 4천명정도로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暗殺된 게마옐親兄 아민
레바논 大統領후보 지명
팔랑헤黨 發表

【베이루트AP聯=聯】 레바논 우익기독교도의 팔랑헤당은 16일 대통령당선자인 베쉬르·게마옐의 암살에 따른 새로운 대통령후보로 베쉬르의 친형인 아민·게마옐(40)을 지명했다고 팔랑헤당이 공식 발표했다.

팔랑헤당소식통들은 의회가 오는23일로 임기가 끝나는 사르키스대통령의 후임자를 선출하기위해 21일이나 22일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레바논 파가의 관례에 따라 팔랑헤당이 대통령선후보의 첫지명권을 갖고있으며 대통령후보는 기독교 마론파 소속이어야 한다.

이軍、西베이루트回教徒와
치열한 市街戰

【베이루트聯=聯】 이스라엘군이 西베이루트를 점령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좌익회교도들과 西베이루트의 좌익회교도본부건물부근에서 치열한 시가전을 전개하고있다고 베이루트 보안소식통들이 17일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이시가전이 이스라엘에 저항하고있는 좌익회교도들의 본부가있는 마즈라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豫算 변경않고 事業費만 조정키로
民正黨

民正黨은 10조5천1백70억원의 내년도 정부豫算案에 대해 총규모에는 아무변동없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총5백60억원의 사업비를 재조정키로 했다.

民正黨은 17일상오 黨職者와 豫決委간부연석회의에 이어 이날 하오 中央執行委를 열어 이같이 예산안을 조정키로하고 정부측과 협의를 거쳐 확정키로했다.

이날 총규모안에서 조정된 内譯을 보면▲農耕地 사업에 대한 정부보조율을 50%에서 60%로 올리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出資金을 1백억에서 1백50억원으로 늘리며 ▲신용보증기금 조성비를 2백억원에서 2백50억~3백억원으로 증액하고 ▲중소기업회관건립비 1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도록 하고있다.

이 조정안은 또▲서울地下鐵건설公社 債券이자 1백억원, 釜山市 지하철공사 채권이자 40억원등 총1백40억원을 정부에서 부담하고▲사회사업복지기금으로 50억원을 새로 計上하며▲일반도로 사업비를 다소증액키로했다.

法律개선현황 청취
국회法司委

국회法司委는 17일하오 개선법률小委(위원장 羅吉祚의원)를 열고 金永均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가 진행중인 법률개선작업에대한 보고를 들었다.

이자리에서 民韓, 국민당의원들은 정부가 정기국회에임박해 정부법안을 무더기 제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獨立기념관 誠金 議員도 모금키로
3黨총무 合意

李鍾贊 民正, 林鍾基 民韓, 李東鎭 국민등 3黨총무들은 17일열린 총무회담에서 의원들로부터도 독립기념관 誠金을 모금키로 합의하고 歲費에서 일정비율을 갹출키로 했는데 그액수는 追後 결정키로했다.

홍콩特別 行政區로
中共、97년이후計劃

【홍콩聯=聯】 한 中共지도자는 오는1997년으로 영국의 租借權이 만료되는 홍콩을 중공의 특별행정지구로 편입시켜 중공의 협력하에영국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통치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것으로 16일 전해졌다.

홍콩의 월간「廣角」誌는 오는1997년이후의 홍콩의 장래에대한 중공의 의도에관해 추측이 난무하는가운데 중공당중앙위원인 項南은 홍콩의 주권에대한 중공의 요구가 단호하다고 전했다.

項南은 그러나 중공이 홍콩의 번영을 계속 유지하고 자유무역항및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누리게하고싶어하고 있다고 말한것으로 이 잡지는 전했다.

중공정부는 아직 홍콩의 장래에 관한구체적인제의를 내놓지않고 있으나 중공지도자들은 홍콩을 영국의 식민지로 축소시킨 19세기의 조약은 무효이기때문에 홍콩에 대한 중공의주권을 회복할 생각임을 분명히 해왔다.

아랍代表 순방外交
中東평화方案 타진

【메나마=聯】 아랍고위대표들이 내주부터 초강대국들과 회교국들을 순방, 페즈아랍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아랍측중동평화안에 대한 지지를 모색할것이라고 쿠웨이트통신이 16일 보도했다.

美·比정상會談가져
현안問題 집중協議

16년만에 미국을 공식방문한 페르디난드·마르코스 필리핀대통령 (65)은 16일 백악관에서 환영식을 가진뒤곧이어 레이건 美대통령과 1시간에 걸쳐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다. 【워싱턴=AP】

새챔피언 라포르테
WBC페더級

【뉴욕AP=聯】 푸에르토리코의 환·라포르테는 15일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벌어진 WBC(세계권투위원회) 페더급 타이틀 결정전에서 동급1위인 마리오·미란다(콜롬비아)에 10회 종료기권승을 거두고 前챔피언 살바도르·산체스의 사망으로 공석이된 페더급타이틀을 획득했다.

동급랭킹3위에 올라있는 라포르테는 당초 前챔피언이었던 산체스에게 도전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산체스가 지난 8월12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하는바람에 이날 미란다와 타이틀 결정전을 갖게되었다.

라포르테는 이날 경기에서 빠르고 강한 펀치를 구사하면서 주도권을 쥐었으며 10라운드 초반 쇼트·펀치로 미란다의 머리를 연타, 다운을 빼앗았다.

라포르테는 지난 80년12월13일 산체스에게 도전했다가 판정패했으며 지난1월30일에는 WBA(세계권투협회) 동급챔피언인 에우세비오·페드로사에게 도전했으나 역시 판정패했었다.

라포르테는 이날 경기에서 승리함으로써 23승(13KO) 3패를 기록했다. 라포르테는 WBC의 지명도전자인 美國의 루벤·카스티요 (동급2위)와 75일 이내에 타이틀 방어전을 가져야 한다.

阿洲서 대형建設受注
大宇、나이지리아 火電·土木등17억弗
現代、가봉서 아파트工事 1억弗성공

大宇와 現代가 나이지리아와 가봉에서 각각 대형건설프로젝트를 따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大宇는 全斗煥대통령의 韓·아프리카순방으로 형성된 韓·아프리카협력분위기에 힘입어 나이지리아정부와 15억달러규모의 20만㎾짜리 화력발전소3기건설수주를 거의 마무리짓고 내년6월경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밖에 2억달러규모의 토목공사도 빠르면 올해안으로 착수한다는 것이다.

또한 現代그룹의 아파트건설전문업체인 韓國都市開發도 가봉에서 1억달러이상의 아파트건설수주에 성공,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국내건설업체의 이같은 수주는 최근들어 이루어진 韓阿협력무드의 본격적인 시발점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건설분야이외에도 섬유·식품가공·油脂化學등 상당수의 기업들이 아프리카국가들과 상호이익에 바탕을 둔 진출문제를놓고 현지기업인들과 꾸준히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阿洲진출對策협의
종합商社회의

상공부는 17일상오 플라자호텔에서 10개 종합무역상사협의회를 개최, 아프리카 주요국과의 교역증대및 경제협력강화등 아프리카 진출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金東輝상공부장관은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계류·플랜트등 자본수출확대 ▲소규모 중소기업부문 합작투자진출 ▲농업개발사업참여 ▲민간기업상호간의 다각적인 경협채널 구축등에 의해 진출하는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종합상사들이 아프리카주요국의 정부구매입찰및 주요개발사업에 적극참여하고 일용품·서비스업종등 소규모자본으로 진출이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며 농기구용품, 국산품 판매 등을 통해 아프리카진출이 보다 용이할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金장관은 海外支社網의 확충및 효율화, 해외진출건설업체의 국산기자재사용확대, 수송기계류에대한 아프터서비스강화, 해외교포의 국산품사용촉진등으로 수출증대시켜줄것을당부했다.

◇金東輝상공부장관(右로부터3번째)은 17일 종합상사협의회를 주재하고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진출확대와함께 아직도 침체를 벗어나지못하고있는 수출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줄것을 당부했다.

주간女性

올해 清白吏3명 選定
光州교도소 의무과장 金圭燮씨
서울市警 면허2계장 黃仁叟씨
감사원前감위사원 朴宰憲씨

금년도 清白吏賞 수상자로 金圭燮(59) 光州교도소의무과장, 黃仁叟(60) 서울시경면허2계장, 朴宰憲(62) 前감사원감사위원등 3명이 선정됐다.

정부는 17일하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前現職공무원 가운데 어려운 여건에서도 10년이상 長期근무하면서 전체공무원의 귀감이된 이들 3명을 82년도 清白吏賞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朴贊鉉총무처장관이 발표했다.

이번에 뽑힌3명의 清白吏는 내무부등 14개기관으로부터 추천된 현직공무원14명과 퇴직공무원2명등 16명의 후보자가운데 현지조사등을 통한 엄격한 공적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이달안에 청백리상패와 훈장및 보상금을 받고 가족동반으로 산업시설을 둘러보는 여행의 기회를 가지며 清白吏賞기록부에 기록된다.

清白吏賞수상자들의공적과 프로필을 살펴본다.

公職생활 틈내 무료진료

金圭燮씨 <光州교도소 의무과장>

의사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웠던 45년 의사자격을 획득한 金씨는 의사들이 흔히 택하는 開業醫와 개인병원전문의의 길을 뿌리치고 公職의 길을 택해 의사생활 37년 가운데 34년을 자기희생의 정신으로 살아왔다.

공직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자신의 개인병원을 경영하면서 公務를 오히려 과외봉사활동정도로 여기는데 비해 金씨는 공직근무시간이 끝나면 자신의 집을 무료병원으로 개방, 불우한 이웃들에게 진료혜택을 베풀고 있다. 병보석결정등과 관련, 교도소의무관이 일으키는 잡음은 金씨에겐 있을수도 생각할수도 없는 일.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金씨의 이러한청렴·결백을 잘 알기때문에 金씨가 쓴진단서는 아무런이의없이통한다.

金씨의 봉사활동은 교도소와 집주변에만 한정되는게 아니어서 주위에선 「페스탈로치」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한다.

오는84년 정년퇴직하게되는 金씨는 그때가되면 무의촌이나 落島로가 의료봉사활동으로 나머지 생을 보낼생각이다.

秋夕선물가져온 부하호통

黃仁叟씨 <서울市警면허2계장>

46년 순경으로 경찰에몸담은이래 36년만에 공무원 최고의 명예를 안게된 黃경정은 그동안에도 방위포장, 국무총리표창등 모두 44회나 각종표창을받았다.

그러나 그의 많은 상이 결코 행운에의한것이 아니며 부정과 不義를 멀리하고 청렴과 강직, 창의성이라는 공직자로서의 외길에 전념함으로써 얻어진 영광이었음은 그의 일생이 잘 말해주고 있다.

忠南도경의 감찰계장시절엔 추석등 명절때 선물을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폈고 자신에게 추석선물을 보내온모순경으로부터즉석에서시말서를받기도했다.

자신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도 외래품단속에 공을 세워 보상금을 받으면 고아원에 희사하는가 하면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키 위해 야간학교를 개설하기도 했다.

어려움을 이기고 다른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위해서 부인 高大方씨에게 양계, 양돈이나 연탄, 옹기장사를 시켰으며 근로가 신성하다는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자신은물론자녀들에게도연탄배달을시켰다.

公私엄격…

朴宰憲씨 <前감사원감사위원>

6·25동란중인 54년 現감사원의 전신인 審計院에 촉탁으로 몸담은 이래 29년간을 감사원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朴씨는 감사원의 산歷史이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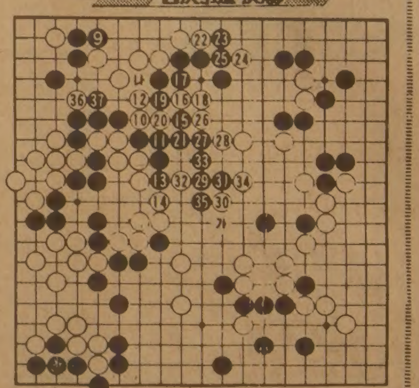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집사람에게 줄 꽃좀 사고 싶은데요" "이거 어때요… 잘 시들지도 않으니까 물도 줄 필요가 없어요" "거 좋군요…이꽃 이름이 뭐죠?" "플래스틱"

第14기 名人戰 3次予選 決勝

第2局 第8譜 109~137 (각4시간·白5집반)

白 (初段) [illegible]
黑 (6段) [illegible]



확산되는 亂戰

시간을 거의혼자 다쓰듯이 했어도 바둑은 자꾸꼬여만 간다. 나머지 10분에서 5분을 소비한 黑초단은 이번에도 처절한 승부수를 던질밖에없었다. 黑9로서 근거가 위험해진 상변白을 싹싹하게 버리고 11자리를 젖혀 黑10때 白21로 몰았으면 중앙일대를 차지할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변일대가 너무커서 白은 승산이 없다.

이리하여 白10은 진짜로 마지막승부수. 그리고 다시금 바둑판이 술렁이는 일대혈투는 한없이 확장돼 간다.

白16도 격사적인 반격. 이하 黑29까지 숨막히는 접전은 그것이 「외길」이니만큼 피차간 최선의 한길을 비웃하면 패하는 식이다.

여기까지에서 승부를 간추린다면 중앙黑과 상변白은 걸나는 수상전. 얼핏 보면 숨이 갇혀있는 黑쪽이 불리하다. 그러나 상변 白도 수가 얼마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이미 초읽기에 쫓기게된 白은 1시간이나 남은 黑에 비하여 동요가 심한상태. 잔뜩 노렸다가 초 읽는소리에 정신이 번쩍들면서 얼른찌어놓은 白36이 문제였다.

순간 黑37로 막은 徐6단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것으로 白이자기수를 1수메운 결과이다. 하기야 白36으로 직접 「가」에 붙여도 黑「나」부터 조여가면 白은 3수를 벗어나지 못한다. 어쨌든 黑초단은 굴이우쇄를 기했을지모른다. <一凡>

—— 청소년 문화잔치 ——
우리말 잘하기

교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모국어와 한국어를 길러주기 위해 작년에 의해 제2회 우리말 잘하기 및 웅변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고자 하오니 많은 학생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아 래—

일 시 : 1982년10월10일(일) 오후5시
장 소 : 교육회관 (252 Bloor St. W.)

제 목 :		
	우리말 잘하기	웅변대회
	자유(5분간)	한글을 배워야 할 이유(7분)

등록마감 : 10월7일(목)
연 락 처 : ☎:789—7352

한·카 청소년 문화협회
토론토 라이온즈 클럽 공동주최

MARVIN STAR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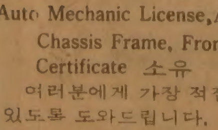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왜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러.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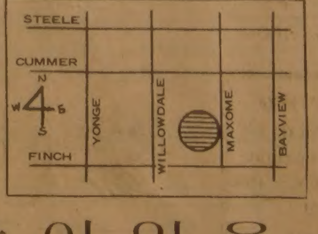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노스욕 한글학교
가을학기안내

여러 교민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본 학교는 학급을 6개반으로 증설코자하오니, 더욱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항상 등록을 받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 NORTH MOUNT JUNIOR HIGH SCHOOL (70 MAXOME AVE.)
시간 : 매주 오후6시~오후8시30분
수강료 : 무료
연락처 : 이인용 789—7352 신영식 491—9701
오정숙 755—9288



노스욕한글학교 교장 이 인 용
학부형 회장 신 영 식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 · 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信賴회복이 急先務

金검찰총장 "巫告한시민 피해없도록"

강력담당 부장檢事회의 物證수사등 다짐

金錫輝검찰총장은 17일『중요강력사건에 대해 계속무죄판결이 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위가 실추되고있으므로 신뢰를 회복하는일이 급선무』라고 지적,『검찰은 단한사람의 범인도 현사처벌을 면하게해서는 안되는 동시에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한사람의 무고한 시민이 처벌돼서는 안된다는 정신으로수사에 임해야한다』고말했다。

金총장은 이날 상오10시 대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강력담당부장검사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검찰은 경찰이 수사해온것을 그대로 기소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 수사검사는 피고인의 형이확정될때까지 공판에 직접관여하여 책임지고 공소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력사건지휘부서인 대검형사2부 金과홍부장과 전국고검및 지검, 9개 합의지청의 강력담당부장검사등 30여명이 참석,최근의 강력사건동향과 예방대책、강력사건 수사체제의 강화、적법한 증거수집을 위한 방안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강력검사들은 특히 ▲영장없는 강제구금·압수수색등 위법 부당한 방법에 의한 증거수집태도를 벗어나 현장중심의 물적 증거수집에 더욱 주력하고▲자백편중의 수사방식에서 탈피, 임의성과 신빙성이 보장되는 자백등 진술증거를 확보하며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담당피고인의 형확정시까지 책임지고 공소를 유지하며▲공판과정에서는 사실인정자료와 양형자료를 완벽하게 제시하고▲그동안의 무죄판결이 난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강력사건 수사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이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證據수집후 連行원칙준수"

安치안본부장 전국警察에 지시

安應模치안본부장은 17일『경찰은 앞으로 모든 범죄수사를 할 때 먼저 증거를 수집한 뒤 연행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자세로 수사방법을 전환、인권옹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安본부장은 이날 각시·도형사·수사과장회의를 소집,이같이 지시하고『이제까지 자백위주로 수사를해왔던 자세를 완전히 지양해야한다』이라고 강조했다。

安본부장은 이어『범죄수사과정에서 개인적 명예를존중하고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지않는 용의자는 귀가조치후 수사를 계속하며 주요사건기록은 반드시 간부가 직접 작성해 송치도록하라』고 지시했다。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에메랄드·루비·사파이어·진주·오팔
536-1692

中央線침범 市內버스 4重충돌 事故

3명死亡 43명負傷

17일하오2시40분께 서울 九老區新道林洞420 삼영화학주식회사 앞길에서 開峰洞쪽으로 달리던 개봉운수소속 서울5사1165호 시내버스(운전사 宋基煥·28)가 골목길에서 짐을싣고 자전거를타고 튀어나온 사람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던 시외버스등과 4중충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타고가던 宋병관씨(61·서울 永登浦區文來洞1街68)등 3명이 숨지고 6명의 중상자를 포함 43명이 부상을입고 인근 강서·도영병원등에 분산치료를 받고있다。

개봉운수버스에 받친 인성여객소속 경기5파1613호 시외버스(운전사 趙奎會·29)는 3차선으로 전복됐고 뒤따르던 관악교통소속 서울5사4637호시내버스(운전사 金顯培·44)、대한여객소속 경기5아3720호시외버스(운전사 洪淳永·38)등도 크게 부서졌다。

이날 사고로 경인국도에서 永登浦에이르는 도로가 1시간가량 막혀 큰 혼잡을 빚었다。

三千浦수협 관내에 활선어위판장 없어

【三千浦】남해안업대중심항인 三千浦수협관내에 활선어 위판장이 없어 어민들이 손해를 보고있다。【聯】

不幸했던 韓·日관계의 징표

李方子여사도 「큰뜻」대열에

독립기념관 誠金

◇독립기념관건립성금 50만원을 한국일보社에 기탁한 李方子여사。

"日의 눈가리고 아웅 못마땅"

조선의 마지막황태자 英親王 李垠공의 태자비 李方子여사가 독립기념관 성금으로 50만원을 한국일보社에 기탁해왔다。

정신박약아와 지체장애자를 위해 노후를바치고 여생을 자선사업에 바치고있는李여사로선 50만원이 벅찬돈이기도하지만 그의 생애가 바로 불행했던 한일관계의 살아있는 징표이기 때문에 더욱 뜻이있다。

李여사는 바로 한국을 침략했던 일본제국 황실의 규수로 침략의 발판을삼기위해 결려든 정략결혼의 희생자이기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한여자로서 마지막 황태자비가 되어 말없이 살아왔고 그의 모든것을 그의 「同胞」인 한국인을위해 바치고 있다。

李여사는 교과서왜곡사건으로 시끄러워지기 이전부터 일본의 눈가리고 아옹하는 대한자세를 못마땅해 했다는게 측근들의 이야기이다。

文世光사건때 조무사절로 방한한 일본고관이 李여사를 찾았을 때 그는『총독부시절 일본인의 만행을 나중에 알고나서는 같은 일본인피를받은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한국이 적화되면 일본이 지금처럼 편하지는 않을텐데…』라며 걱정하기도 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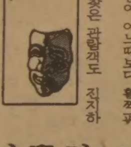
교과서왜곡에 대해서 李여사는『일본이 왜 이럴까。교육이란 만년대계인데 나중에 자신에게 해가 돌아갈 일을 왜 하느냐』고 탄식한다。

그는 성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독립기념관이란 말이 적합치않은것 같다』고 지적、『우리가 독립한게 해방후가 아니지 않느냐。광복기념관이란 말이 더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李여사의 말뜻은 고대부터 한국이 독립국가로 존재해왔지 않느냐는 의미인 모양이다。

이름이야 어찌됐든 李여사는 기념관이 완공되면 자신이 기증할 물건도 있지않겠느냐면서 주위가재도구도 새로이 눈여겨 둘러봤다。

남을위한 藝術

不遇돕기 慈善展 여류화가 任德華씨



"형식行事보다 따뜻한 말한마디를"

여류동양화가 芝山 任德華씨(43·사진)는 16·17양일간 생애 가장 보람찬 전시회를 가졌다。그동안 국내에서 3회、외국에서 2회등 도합5회의 개인전을 가졌지만 이번처럼 마음이 뿌듯한 때는 없었다。

전시기간도 단 이틀에、전시장도 서울道峰區放鶴1洞229의 개인집이었고 작품도 4호~20호의 소품중심인 조촐한 전시회였지만 「불우청소년선도기금모금」이란 아름다운 뜻을 받아 어느때보다 활짝피었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도 진지하게 작품을 감상해 주었고 흐뭇한마음으로 그림을 사주었다。 널리 알리지도 않았는데 요즘같은 불경기에 전시작품 50점중 25점이 팔렸다。

梨大 美大를나온 1남2녀의 어머니이기도한 任씨는 3년전부터불우청소년돕기에 남다른 뜻을 펴왔다。 서울北部지구 청소년선도위원회 放鶴분회 부회장으로 청소년선도에 힘을쏟는한편 신문배달이나구두닦이를 하며 면학의 뜻을 펴고있는「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왔다。

그러나 집에차린 芝山미술연구소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만으로는 마음대로 뜻을 펴나갈수가 없었다。궁리끝에 자선전시회를 갖기로 결심、지난5월부터 4개월반동안 화실에 파묻혔다。 되도록이면 외출도 삼가고 찾아오는 사람도 멀리하며 화폭에 매달렸다。 그동안의 작품은 예술과 자신의 심미적인 세계를 위한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자신보다는 남을위한다는 보람에 피곤함을 이겨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불우청소년을 돕는다는뜻을 사주어 8백만원을 손에 쥐었다。 이돈으로 15명의 불우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줄 소박한 계획까지 세워놓고있다。

그러나 任씨는 이번전시회로 그동안의 안타까움을 모두 해소한것은 아니다。 오히려 쓸쓸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양로원의 할아버지·할머니들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경로사상이나 불우청소년선도등은 한해 한차례 연례행사로 끝날 일이아니라고 봐요。 전시적인 행사보다는 마음을 파고드는 따뜻한 말한마디가 더 나을 겁니다』【趙明九기자】

雷管공장 爆發

3명死亡·5명重傷

15평 스레이트건물 날려

서울 道峰區「冶山화공」

◇흔적조차 없어 화약폭발로 순식간에 날아가버린 서울放鶴洞의 冶山화공 공장。 이사고로 3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17일 하오 3시7분께 각종뇌관제조공장인 서울道峰區放鶴洞536의1 冶山화공주식회사(대표 이윤도·59) 제1공장서 폭발사고가 발생、공장안에서 작업을하던 공원우순재씨(59)、박규봉씨(26)、정나진씨(36)등 3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날 폭발현장에서는 숨진 우순재씨(59)등 공원 10여명이 뇌관케이스에 화색화약을 집어 넣는 작업을 하던중이었다。

이날 기계실에서 작업중이던 李錫幸씨(24)에 의하면 갑자기 수류탄이 터지는듯한 폭음이울려 밖으로 나가보니 15평크기의 화약실 블록 슬레이트건물이 산산조각이 났고 기와장과 블록벽돌이 하늘로 치솟았다는것。

사고가나자 소방차20여대등이 동원돼 긴급진화작업을 벌였으나 현장에 남은 뇌관이 계속산발적으로 폭발하는 바람에 현장접근이 어려워진화및 구조가 늦었다。

이사고로 김광현씨(26)가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慶熙大의료원에 입원가료중이며 대표 李씨와 종업원 朴鉉鋼씨(26)、김상원씨(28)、임상진씨(26)등 5명은 전신에 파편상을입고 동국병원으로 후송되었다。

冶山화공은 10년전에 내무부의 허가를 받은 국내 유일의 각종 화약류、총포、엽총용 뇌관、공업용 타정(打釘)총의 뇌관등을 전문으로 만드는 업체다。

또 지난79년7월부터는 국내최초로 각종 건설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타정총및 그 부속품과 각종 콘크리트용 타정 볼트핀、강재용핀등을 직접생산해왔다。

본사는 서울鍾路區通仁洞134의1에 있고 放鶴洞공장은 제1공장이며 大邱市北區鶴院洞에 제2공장이 있다。

이날 사고로 폭발된 화약은 40㎏정도로 보인다。 경찰은 종업원이 담배를 피우다 버린 꽁초가 화약에 인화돼 일어난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한편 공원 林相鎬군(20)은 제품을 포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소리가 나면서 벽과 천장이 한순간에 무너져 공장뒷산으로 2백여m가량 도피、공장쪽을 바라보니까 공장이 무너져앉았고 그때서야 벽돌에 맞은듯 가슴이 아팠으며 뺨에도 피가흘러 만져보니 오른쪽귀가 찢어져있었다고 말했다。

또 朴鉉鋼군(26·종업원)은 옆방에서 화약에종이를두르고있는데 갑자기연이어 폭발음이、계속되었다고 말했다。

朴군은 무너진 벽돌더미와 작업대사이에끼여 대피를 못하고있다가 대표의아들인 이규철씨가 벽돌을헤쳐주어 나왔다고 말했다。

朴군은 폭발직후 누군가가 공장안의 소화기에 접근、불을끄려했으나 폭발이 계속되어 가까이 갈수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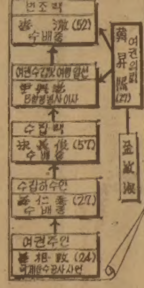
火藥혼합실서 發火

한편 사고원인을 조사중인 경찰은 화약혼합실이 가장많이 폭파되었고 화약혼합실에 있던 작업반장 박규봉씨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김광현씨가 중화상을 입은점으로 보아 화약혼합작업중 실수로인해 혼합실에서 1차폭발이 일어난것이 아닌가 보고 조사중이다。

航空社간부통해 구입

愛情행각 變造여권 「범양」理事 尹興老씨 수배

수집·變造責등 조직 드러나



◇수배된 尹興老씨

◇수배된 宋長俊씨

韓昇熙씨여권위조사건을수사중인 서울西部경찰서는 17일 韓씨가 위조여권을 항공대행업소직원을 통해 구입했다는 새사실을 밝혀내고 서울中區乙支路1街192 汎洋항공사 영업이사 尹興老씨(39·서울江東區吉洞344의1)를 지명수배했다。

이로써 韓씨등의 여권은 항공대행업소직원과 변조책、여권수집책등이 낀 전문조직에의해 위조된것이 확인됐다。

경찰에 의하면 韓씨에게 여권을 만들어준 조직은 수집책 宋長俊씨(57·사기전과2범·서울 恩平區 鷹岩洞242의264)가 여권을 수집、尹씨에게 넘겨주면 불법출국희망자들로부터 부탁을받은 尹씨는 변조책 李澈씨(52)를 통해 여권을 변조케해 거액을받고 팔아왔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이들 변조조직이 출국검사대까지 손을뻗쳐 완벽하게 불법출국을 도와주거나 많은 이익이 남는 불법출국을 전문으로 도와주는것이 아닌가도 수사하고있다。

지금까지 이조직의 중요한 인물로 수배를 받아온 姜仁泰씨(27)는 16일하오4시 서울西部경찰서에 전화를 걸어『나는 이번사건과 관련이 없다。 단지 宋長俊씨에게 현금 5만원을 빌리고 여권을 맡겼을 뿐이다』며 宋씨를 만나 동생의 여권이 李澈씨 손에 들어가게된 경위를따진후 자수하겠다고 말했다。

尹씨는 여권대행 대행업소에서 10여년동안 근무했으며 지난79년6월 H항공사 부장으로있다 옮겨왔다。 10여년전에는 烏山일대 기지촌에서 여권대행일도 해온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尹씨는 16일하오6시께 회사에서 퇴근한이후 집과 회사에 연락이 끊겼다。

尹씨는 1백70㎝의키에 가름한얼굴과 보통체격이며 부인과 1남1녀와함께 대지45평 건평25평의 양옥집에서살고있다。

수집책인 宋씨는 부산D대학을졸업、한때 고교교사를 하다 무역회사를설립해 사기행각을 벌이기도한 사기전과 2범。

금년초에는 尹모씨(58)와 모씨(47)와함께 B조선에 접근、일본에 바지선 3척을 팔아주겠다며 신용장등 서류를위조해주고 사례비로 모두 5천여만원을받아 가로채 기소중지자로 돼있다。

美서도 對日 歪曲규탄물결

워싱턴·뉴욕등 주요都市서 궐기대회

【워싱턴=李文熙특파원】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에 항의하는 궐기대회가 18일 워싱턴을 비롯、뉴욕、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등 미국주요도시에서 일제히시작된다。

워싱턴지역의 궐기를 주관하는「일본 역사왜곡 항의동맹」은 16일하오 워싱턴시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궐기는 중국과 한국등 아시아系미국인들이 중심이되어 묵과할수없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항의하기위해 발기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워싱턴지역 중국系미국인을 대표한 제인·후박사와 웨슬리·왕박사、한국系인 진교륜박사·안홍준박사는 기자회견에서『이모임을통해 前나치의 학살을능가하는 일본의 잔학상을 똑바로 알리는것은 우리의 도덕적책임이며 침략에는 항거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궐기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아시아系미국인외에 2차대전 참전용사등 뜻을같이하는 미국인들도 참여하게될것 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18일 하오1시 워싱턴의 백악관앞에 있는 라파이에트 공원에서 항의궐기대회를 가지며 이자리에서는일본에 의해 무참히 희생된 1천8백만 아시아인들의 명복을비는 위령제를갖고 이어일본정부와 국민、미국정부 및 의회에 보내는 결의문과 선언문을 채택할것이라고 말했다。

拉致등혐의 韓昇熙 美연방法院에 이첩

【리틀턴(美콜로라도州) UPI=聯】미스서울 李兪政양을 납치한 것으로 알려진 韓昇熙씨는 16일 납치및 위조여권소지 혐의로 미연방법원으로 이첩됐다。

빌·파로마연방검사보는 韓昇熙씨에 대한 혐의사실을기록한 공소장이 美콜로라도州 덴버시의 연방사법당국에 제출됐다고 말했다。

파로검사보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므로 韓昇熙씨는 곧 연방구치소에 수감될 것이라면서『앞으로 이사건은 미연방법원에서 다루어지게될것』이라고 밝혔다。

美아라파호군지방검사들도 이날 이번 사건이 州사법관할에서 연방당국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全國 비상防疫 秋夕맞아 食中毒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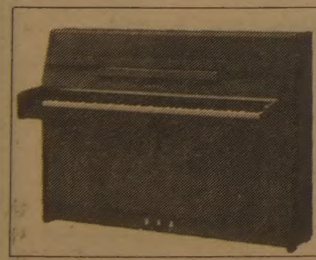
보사부는 17일 가을행락철 및 중추절을전후한 인구의집단이동등에따른 식중독및 수인성전염병의 발생을 막기위해 집단급식소등에대한 위생검열등을 일제히 실시하는등 중추절비상방역활동을 펴기로 했다。

보사부가 이날 각시도에시달한 중추절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각시·도및 시·군단위로 대청소의날을 지정하여그동안 무더위의 계속으로 더럽혀진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파리、바퀴벌레등에대한 집중적인 살충작업을 벌이도록했다。

특히 양로원·고아원등 사회복지시설에대한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시장·아파트·상업장·감호소·극장·가축사육장등에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했다。

5주년 개업기념 스페샬 ★기 간 : 9월1일~9월30일

10~30% OFF



CX-4 Walnut(open pore)
CX-4 Ebony Polish
$2,995(Reg.)

DX300 $3,495-R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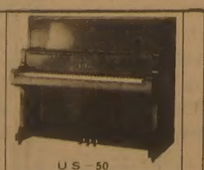
DX80 〈Reg〉 $1,595

DX90 $1,895-REG

DX100 $2,395-REG
DX200 $2,995-REG

⊙새로 도입된 DX전자올갠 전 모델(10% -15% off)
⊙각종 신형 Model의 upright 및 그랜드 피아노(10% -15%)
⊙기타 USED피아노및 전자올갠(30% 할인)

⊙KS3F(50인치) Ebony polish Reg. $4,995
⊙UST7(46인치) Reg. Ebony Satin $3,995 Walnut Satin $4,095



⊙US 50 (52인치) Reg. $5,995

⊙CE7N open walnut $3,395 Reg. Walnut polish $3,595 ivory polish $3,995

⊙KL32WG(52인치) Reg. $6,495
⊙KL 502(49 inches) Walnut Satin Reg. $4,995 32 WD.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호섭

잇단負傷 여자농구팀 "危機"

主戰 朴鎭淑·金和順도 故障

亞洲競技 앞두고 불안

◇朴鎭淑

◇金和順

지난 3월 東京에서 열린 아시아 여자 농구선수권 대회(ABC) 中共과의 대전서 극적인 결승골을 성공시켰던 朴鎭淑과 金和順이 부상을 당해 아시안게임을 2개월 앞둔 한국여자농구는 큰 시련을 겪게되었다. 남자 농구 대표팀이 주력선수들의 잇단 부상으로 전력 약화가 불가피한 현실인데 中共과의 대전서 구기 종목으로는 유일하게 승리를 예상할수있는 여자농구 마저 주력 선수들이 부상을 입어 불안을 가중 시키고있다.

朴鎭淑(23·鮮京)은 당초 허리 디스크로 고생해 왔는데 최근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껴 연습을 못하고있다. 대표팀의 趙勝延코치는 『朴鎭淑이 최근 벤치프레스등 체력운동을 했기때문에 어깨에 이상이 온것 같다. 順天鄕병원 진단결과 근육통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말하고있다. 그러나 朴이 속해있는 鮮京팀 林桂三감독은 『단순한 근육통이라면 걱정할것이 없지만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어 어깨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큰일』이라고 말했다.

金和順(21·東邦生命)은 연습도중 왼쪽발목을 삐어 고통을 받고있다. 金和順은 작년11월 추계연맹전서 왼쪽 발목을 삔후 4~5개월 고생했는데 최근 같은자리를 또 부상당해 완치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자농구대표팀 주전 전력은 가드진의 朴良桂 朴鎭淑, 포워드진의 金和順 成貞兒, 센터 朴贊淑으로 짜여져있다.

「물개자매」 치열한 記錄경신 경쟁

崔允庭·允喜 또 한국新

자유형百m 0.15秒단축 允庭

배영百m 1分06秒 기록 允喜

대통령旗 전국水泳

◇한국新의 力泳 여고자유형1백m예선서 한국신기록을세운 崔允庭(상명여고)이 力泳하고있다.

한국 여자 수영의 호프 崔允庭(상명여고)、允喜(서울사대부여중) 자매가 치열한신기록 경쟁을 벌이고 있다. 印度아시아경기대회를 2개월 앞두고 17일 잠실 실내수영장서 개막된 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수영대회 첫날 경기서 崔允庭·允喜 자매는각각 한국신기록을 1개씩 세우며 기록경신에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다.

이날 여중 배영1백m예선서 서울팀의 崔允喜는 언니 允庭이 10일전 아산기대회서 작성했던 한국최고기록을0.01초 단축한 1분06초F로 한국신기록을 수립, 여자 배영1백m와 2백m를 모두석권했다.

한편 동생에게 여자배영1백m 한국기록을 빼앗긴崔允庭은여고자유형1백m예선서 1분01초92로 지난 8월초東亞수영대회서 자신이 세웠던 한국기록을0·15초단축했다.

이번대회는 전국에서 6백13명의 선수가 참가, 시도대항으로 19일까지 3일간 벌어진다.

◇한국신기록

▲여중배영1백m예선=崔允喜(사대부중) 1분06초F(종전1분06초01) ▲여고자유형1백m예선=崔允庭(상명여고) 1분01초92(종전1분02초07)

토머스 켈러 國際競技聯 총연합회장

인터뷰

◇토머스·켈러회장

올림픽經費 절감運動 펴야

서울大會도 절약방법 있다

『올림픽 개최에따른 경비 절감운동은 84년 LA대회때부터 일어나야되며 또그렇게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계태권도 연맹 金雲龍총재의 초청으로 방한한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GAISF)토머스·켈러(58·스위스)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서 이같이 밝혔다. 뮌헨올림픽때 주경기장의 지붕을 만드는라 쓸데없이과다한 경비를 들였고 몬트리올 올림픽서는 당초예산의 10배를 초과하고도 경기장을 완공하지 못한 난센스를 예로들면서 비록관중석은 작아도 경기시설·기자실·중계시설만 완비되면 족하다는게 GAISF의 입장이라고했다.

또 켈러회장은 서울올림픽의 경비 절약방법에 대해서는 ▲잠실수영장은 늘릴 필요가 없이 임시 좌석을 마련하고 ▲신설되는 조정장 관중석도 2천5백명 정도면 충분하며 ▲샤워장 탈의실등도 화려하게 지을필요없이 천막으로도가능하다고구체적으로제시하기도. 오는11월뉴델리아시안게임에서 이스라엘 제외움직임에 대해서 켈러회장은『개최국 印度가 이스라엘 선수들의 신변안전을 이유로초청에 망설이는것이지 IOC의아시안게임인정여부와는 상관없다』고밝혔다.

GAISF는23개하계올림픽 종목·6개 동계올림픽·34개 비올림픽등 모두 64개 국제경기및 관계단체를망라한연합기구로올림픽의실질적인준비와진행을관장한다.【金仁奎기자】

富川工 2連勝 선두

中高핸드볼 仁川體高를 21·13 제압

제10회 체육부장관기 쟁탈 전국남녀 중고핸드볼대회 이틀째 경기가 열중체육관에서 벌어져 남고B조의 富川工高는 仁川體高에 21-13으로 승리, 2연승을 기록하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남고A조의 東亞高는 高麗高와 맞서 전반서 10-9로 1점차의리드를잡고후반서맹공을펴 21-15로 승리했다.

◇제2일 전적

▲남고A조 동아 21-15 고려 (1승) (1패)

▲동B조 부천공 21-13 인천체 (2승) (1승1패)

▲남중A조 천호 18-13 포승 (2승) (1패)

▲동B조 광운 기권 마석 (1승) (1패)

▲동C조 반포 21-13 발안 (1승) (2패)

▲여중B조 경상 19-10 안락 (1승) (1패)

정신 9-7 안동 (1승) (1패)

싱가포르 國際축구 한국代表팀을 구성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10월5일부터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회 머라이온컵축구대회에 참가할 선수단을구성 발표했다.

선수단은 18일부터 태릉선수촌에서 합동훈련을 갖는데 아시안게임참가대표선수단과 몇차례의 평가전을 실시한다.

▲감독=朴世鶴(해룡) ▲코치=徐鉉玉(동아대) ▲선수=崔仁榮(서울시청) 鄭基東(포철·이상GK) 韓文培(신탁은) 金漢奉(주택은) 金平錫(광운공대) 金哲洙(포철) 金鍾萬(동아대) 李鍾和(인천대·이상FB) 金鶴守(대우) 朴昌善(포철) 李容秀(해룡·이상HB) 白鍾英(해룡) 吳錫載(충의) 朴潤基(서울시청) 李太燁(〃) 金基孝(국민은) 林告石(성대·이상FW)

한국 2體級서 메달획득 기대

세계力道오늘開幕

【류블랴나(유고)=聯合】제36회세계역도선수권 대회가 한국을 비롯한 46개국 6백여 임원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18일 이곳 티보리체육관에서 개막, 열전9일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한국선수단 일행9명(임원4·선수5)은 14일 유고의 자그르브공항에서 입국비자를 발급받은후 이곳에 도착,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다.

한국은 상위입상전망은 없으나 56kg의 李明洙와 60kg급의 李龍求가 메달권에 들것으로 기대하고있으며 전반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있다.

WBC페더級 새챔피언과 아들

◇WBC 페더급 챔피언이된 라포르테가 경기후 생후6개월난아들과 상면하고있다。【뉴욕16日 AP電送=聯合】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金光培 畫 <219>

미리 온 아이 ㉒

그들의 셋방엔 동쪽으로 작은 유리창이 나있었다. 그 유리창으로 아침해가 비치면서 성에가 드러났다. 세식구가 밤새 뿜어낸 입김이 거기 [illegible] 아롱답고 신비하게 무늬져있었다. 성에가 그렇게 아름다운것인줄 미처 몰랐었다. 고아원의 [illegible] 유리창에도 겨우내 성에가 끼었다. 아침이면 푹 쓰고자던 이불에서 눈만 내놓고 유리창의 성에의부피로 그날의 추위와 [illegible]의 냉기를 가늠하면서 진저리를 쳤었다.

오목이는 성에가 녹지않는날은 성에다 낙서를 하고놀기도 했었다. 꽃이나 나비, 꿈이 담긴 시귀따위가 아닌 [illegible] 욕설이 고아원 아이들의 낙서의 줄기찬 주제였다.

오목이는 액자만한 동창의 성에위에다 낙서를 하고싶다고 생각했다. 첫눈위에 조심스럽게 발자국을 찍듯이 아기의 이름을 빛나는 성에위에 새기고 싶었다. 그러나 아기에겐 아직 이름이 없었다.

아빠가 깨거든 아기이름을 의논해야지. 오목이는 비록 입밖에 낸것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일환이를 아빠라고부르고나서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황급히 빌었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앞으로도 오늘같이만 행복하게 해주소서.

오목이의 행복의척도는 그렇게 겸손했건만도 [illegible] 과욕이나 안부렸나 싶어 불안했다.

일환이가 잠을 깨났다. 그는 깨어나자마자 아내와 아기를 손으로 더듬어 한꺼번에 품안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품속은 둥우리처럼 따습고 편안했다.

『잘 잤소?』

『네 당신도요?』

『아기가 깰까봐 신경써졌지만 곧 [illegible]』

『이놈이 왜 이렇게 순하지. 밤새 한번도 안깨더라』

그가 익숙한 솜씨로 아기의 기저귀를 갈면서 말했다. 오목이는 대답하지않고 얼른 일어나서 옷을 주워입었다. 그녀는 필요이상 껴입으면서 생각했다. 그의 너무도 천연덕스러운 아빠노릇을 보는순간 그녀를 [illegible] 지나간 그 이물스러움은 무엇이었을까하고.

그것은 정체를 알수없는채 다만 비누처럼 차갑고 예리하고 기분 나빴다.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뻔했다. 그에게 뭐라고 말해야할 것 같았다. 그가 천연덕스러운대로 자기도 장단을 맞춰 천연덕스럽게 굴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그에게 말할까? 아빠노릇을 너무 천연덕스럽게 할거 없다고, 아니 아기를 구박하고싶으면 실컷 구박해도 좋다고 말할까?

그녀는 자기입에서 무슨 [illegible] 말이 나올지 몰라 허둥지둥 문밖으로 나왔다. 아기에게 뭔가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는 일환이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아침준비를 했다.

천장만 가린 한데부엌은 씻어놓은 쌀이 꽁꽁 얼어붙을만큼 추웠다. 그러나 연탄아궁이 위에선 한솥의 물이 펄펄 끓고있었다. 살만했고, 추워도 견딜만 했다. 온기없는 햇빛이나마 부엌 깊숙이까지 들이비쳐 그녀를 기쁘게했다.

더구나 어제 이사오면서 들여놓은 백장의 연탄때문에 부엌은 운신을 못하게 옹색했지만 한편 부자가 된것처럼 흐뭇하기도 했다.

[illegible] 들여 세놓은 집이라 [illegible] 부엌도 연탄아있어서 그 속사정이 [illegible] 들여다보였다. 연탄을 백장씩이나 쟁여놓은 집은 오목이네밖에 없었다.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내고향통닭집

칼국수 오뎅 통만두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 김미리자 BAND— 기타 : 신상철

올겐 : 함효상

드럼 : 권순근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Richard Y. K Wong

Insurance Broker

보 험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상업(가게·레스토랑등) 전문

312 DUNDAS ST. W. TOR.

(B)977-4057 (H)461-7769

Registered Insurance Broker 리차드·왕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국일보

캐나다 사회를 아는 지름길.

교포사회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관심을 가지신 분은 꼭히 구독해야 할

"한국일보"(THE KOREA TIMES TORONTO)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월 : $9, 6개월 : $50, 년 :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화 : (416) 533-2361

구독 신청서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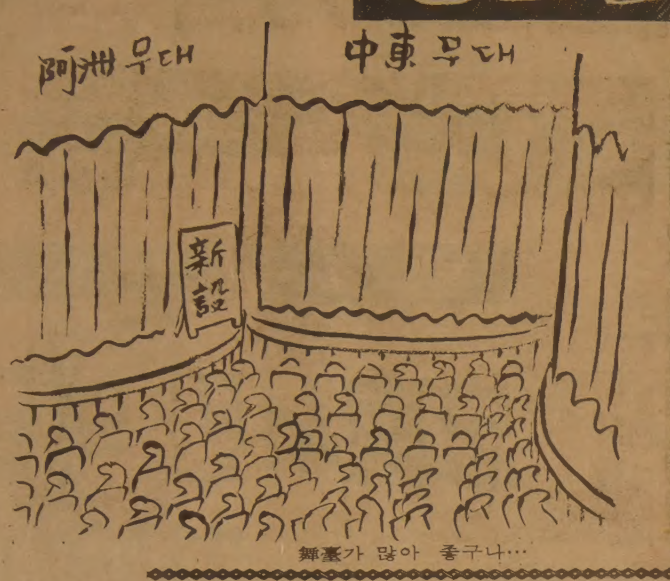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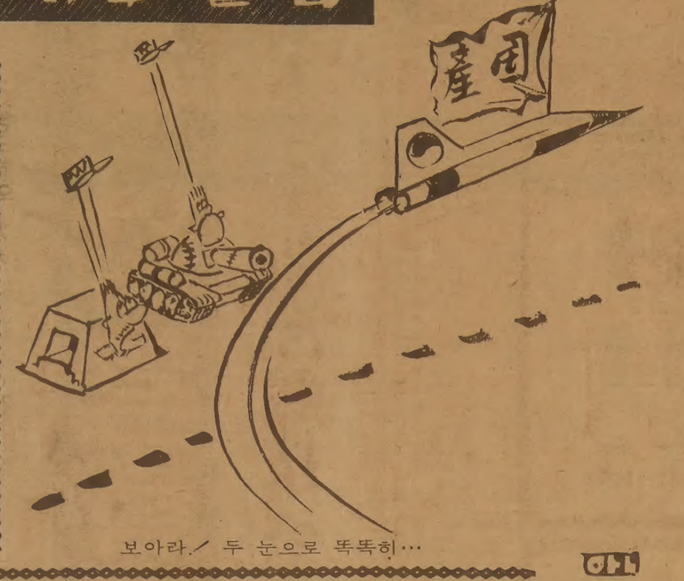
週刊한국

블루어 하드웨어
Benjamin Moore PAINTS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안의섭 時事 칼럼



舞臺가 많아 좋구나…


보아라./ 두 눈으로 똑똑히…

골프狂

평일(平日)이긴하지만 골프장은 무척 한산했다. 스미드씨는 마지막홀에서 네번째의 퍼팅을 하고난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클럽하우스로 돌아와 샤워를하고 클럽의 바에서 맥주를 한잔들고 있으려니까 한경관이 다가와서 말했다.

『당신이시죠? 아까 코스에 나왔던 사람은?』

『그렇습니다만…』

『당신이 친 공이 한참까지 날아와서 마침 거기를 가고있던 차의 앞유리를 깨버렸어요. 다행히 사망사고는 없었지만, 운전사는 큰부상을 입었는데 어떡하시겠읍니까?』

스미드씨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골프채를 들고 폼을 잡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이번엔 조금더 스탠스를 넓게 잡도록하죠.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조금 앞으로 내밀고, 종래하던것과는달리 약간 과속을 향해 치도록하면 되겠군요. 핫핫핫』

—얘기의 샘—

구두와 넥타이

값비싼 에나멜구두를산 윌리는 뽐내노라고 진종일 그 구두를 신고 다녔다. 밤에 잠자리에 들때도 옷을 모조리 벗고난 맨나중에야 구두를 벗기로 했다. 알몸과 구두만 남기고 알몸이 된 그는 거울앞에서서 거울에 비친 반짝반짝 빛나는 구두를바라보면서 혼자 기분이 좋아 벙긋벙긋 웃는것이었다.

그런데 시선은 자기자신의 몸뚱이를 훑어내리고 있었다. 좀 모자란 윌리는 새구두를 신은 탓인지 자신의 신체가 굉장히 늠름해보인다고 생각했다.

윌리는 중얼거렸다.

『흥, 내 몸뚱이도 이 구두가 마음에 든 모양이지. 지난번 넥타이를 새로 사맸을땐 그렇지도 않았는데말야.』

—얘기의 샘—

황무지에 핀 女性발명가

기발한 발명품 2백16점중 여류발명가 작품은 2점뿐

우리나라 발명가들의 우수 발명품들을 한자리에 모은 「82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한국발명특허협회주최로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이 전시회에는 최근 세계발명품전시회에서 입상한 24명의 발명품 29점을 비롯, 모두 2백16점의 기발한 발명품이 전시됐고 연인원 10만에 달하는 엄청난 관람객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여성발명가가 거의 전무한 국내실정에서 2명의 여성발명가가 내놓은 작품이 의욕적 전시돼 주목을 끌었다.

◇『불편한 점을 개선하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목적 사다리 겸용세탁건조대를 출품한 李仁順씨。

◇『화산력에 미쳐 산 10수년 세월이 고난의 시간이었으나 보람도 컸다』고 얘기하는 夫順姬씨。

프로와 아마 차이

모두 2백16점중 외롭게 전시된 여성발명가의 발명품2점은 夫順姬씨(61)의 화산석(火山石)을 이용한 단열건축골재송이와 李仁順씨(46)가 내놓은 다목적사다리겸용세탁건조대. 여성의 발명연구활동이 거의 전무한 국내풍토가 안타까운 이들 두 여성발명가는 할말이 많았다.

『여성이 특허를 가지면 사업적으로 99% 성공한다고 확신합니다. 여자는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꼼꼼하지않습니까. 운영방법이 전혀 다르죠.』

그러나 여성실업인을 도무지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국내풍토가 여성으로 하여금 연구, 발명에 관심을갖지 못하게하는 가장 큰 저해요인이라는게 夫順姬씨의 얘기다.

夫順姬씨는 이미 수종의 특허를 소지하고 있는 꽤 알려진 여성발명가. 특히 현재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화산력을 이용한 경량 단열건축골재 메이커 신다콘개발공사의 운영과 60년대말부터 70년대초까지 예비군교육, 학생군사교육용 교보재의 독점공급등으로 업계에도 이름이 상당히 알려진 맹렬여성사업가다.

『저를 보고 친정쪽에서는 집안 전통을 깼다고 그래요. 저희 친정은 아버님이 의사이셨고 친척분들이 대부분 의사, 학자들이셨죠. 저의 형제들도 의사 아니면 학자이고 사위도 당연히 의사나 학문하는사람이어야 했읍니다.』

그러나 夫씨는 이상하게도 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트럭에 가득가득 짐을 싣고 짐을 드나드는 모습을 그려보곤 했다고한다.

사업이 발명가되고

夫씨는 학교를 졸업하고 편물학원을 했었는데 60년대말 예비군이 창설되고 교보재를 독점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독점사업에 대한 엄청난 매력을 느꼈다. 그런데 독점사업이란 특허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자기가 연구 고안한 제품을 가지고 여성특유의 꼼꼼함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실패가 없읍니다. 그것도 독점이란 큰 무기를 갖고 하는 사업이니까요.』

夫씨는 이때부터 발명이라는데 크게 관심을 가졌는데 우연히 제주도에서 발견한 화산력이 그후 10수년을 화산력에 미친 여자로 夫씨를 끌어 갔다.

꾸준한 연구결실봐

『처음에는 제주도에서 그냥 예뻐서 괴석을 하나 주워왔지요. 그런데 요리저리 살펴보니 뭔가 딴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것 같았어요.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약품을 섞어보고 약2~3년간 화산력과 살았읍니다.』

근 3년에 걸친 연구끝에 제주도에 무수히 널려있고 아무 쓸모없던 화산력은 단단하고 가볍고 철저한 보온효과를 지닌 훌륭한 건축자재가 됐다.

딸만 다섯을 둔 夫씨는 딸들로 부터 『우리 엄마는 화산력이란 것만 없었으면 편안하게 살텐데』라는 말을 매일같이 들어왔다고 한다. 그만큼 발명가의 길이란 남모를 어려움이 크다는 얘기다.

夫씨는 한국의 여성발명가 숫자를 4~5명정도로 기억했다. 이렇게 여성발명가의 활동이 빈약한것은 여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때문이라고 강조한다.

『화산력 때문에 동자부에 형식승인신청서류를 하루에도 7번이나 갖고 들어가본 적이 있읍니다. 딴 이유는 하나도 없고 여자라고 무조건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두뇌자원의 광범위한 개발이란 면에서 여성에대한 인식이 좀 달라져주고 또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여성들도 연구하지 말라고 해도 머리를 싸매고 나설것이라는것이 夫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에 여성발명가가 하루빨리 늘어나야한다고 강조하는 夫씨는 자신의 다섯 딸들을 발명가로 만들고 싶지않다고 했다. 그동안 여자로서 발명한다고 보낸 10여년 세월이 그만큼 고난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여류발명가 많도록 정부차원 지원절실

생활주변서 찾을수있는 발명품도 많아

불편한점 개선이발명

夫씨가 기업규모의 프로급 발명가라면 다목적사다리를 내놓은 李仁順씨는 다분히 아마추어적 기질의 발명가다. 스스로의 직함을 夫씨는 신다콘개발공사 부사장이라고 얘기하는 반면, 李씨는 단순한 주부임을 강조한다. 그의 발명품도 바로 주부들의 생활주변에서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는것이 되고 있다.

『발명이란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살아가다 불편한 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바로 발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李씨는 젊어 신사동 네거리에 있는댁 건평이 약80평정도되는 꽤 큰 2층집이라고 했다. 주부로서 철이 바뀌면 정원도 손질해야 되고 개간 전구를 갈아 끼우거나 도배를 하는등 높은데 올라갈 일이 많았다. 그러나 보통의 가정에 사다리를 갖고 있는 집은 거의 없고 전구하나 갈아 끼우려고 해도 아빠가 돌아오기만 기다려야 했다. 이런 불편함을 덜어보려는 조그만 노력이 그녀를 발명가로 만들었다는 얘기다.

李씨의 사다리는 우선 알루미늄제품으로 가벼워 여자 힘으로도 간단히 운반이 가능하다. 또 세탁물을 걸수 있는 알루미늄봉을 부착하면 견고한 빨래걸이가 되고 접힌 사다리를 펴면 화재나 기타 비상시의 대피용 사다리로 둔갑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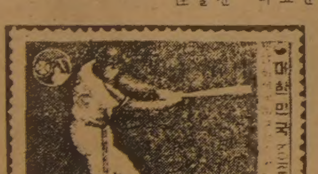
『전에도 세탁건조대를 고안, 특허를 하나 갖고 있긴하지만 저자신을 발명가라고 부르기는 쑥스럽습니다. 단순히 두자녀의 어머니인 평범한 주부로서 불편한 점을 조금씩 개선해봐야겠다는 정도의 생각이지요. 앞으로도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李씨는 이번에 고안한 다목적 사다리를 생산하는 새문화공업사를 차리고 사업가로도 활약할 뜻을 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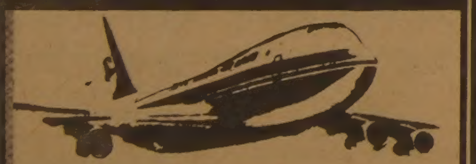
한편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 연세대교수인 安世熙박사가 출품한 「回轉子軸무근의 非磁性體를 사용한 전동기」가 대상인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기계부문=심지선강식 석유연소기의 연화가스 배출장치(洪基上) ▲전자·전기부문=局線과 內線을 상호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키텔레폰방식(금성통신) ▲화학부문=아크릴릭수지에 대한 전사방법(太一화학) ▲섬유부문=방적사와 유사한 외관을 주는 합성섬유 필라멘트섬유사의 제조방법(동양나일론) ▲토건부문=중간 창틀골재(주식회사 럭키) ▲농수산부문=가로수보호용 덮개(朴仁浩) ▲잡화부문=테니스볼제조용 기모직의 제조방법(주식회사 낫소)이 각각 금상을 차지했다.

〈權寧八기자〉

새우표



세계野球선수권 기념

제일여행사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각종단체 관광요금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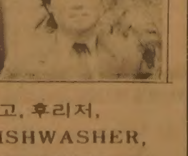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록

공 고

1982년 9월 18일(토)부터 저희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영업시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월요일~목요일 :	오전10시~오후6시
◎ 금요일 :	오전10시~오후7시
◎ 토요일 :	휴무

보험과 법이 보장하는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641 BLOOR ST. W. TORONTO M6G 1L1
☎ : 533-9387 · 9388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FINCH / LEON'S / MCLEVIN / SHEPPARD / MARKHAM / HWY. 401

사건記者 수첩

신문에 안난 現場

뱀에 물려 생명을 잃거나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적지 않은것 같다. 忠南道에서만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사이에 2백13명이 독사등 뱀에 물렸다. 전국적 집계가 없어서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할수는 없으나 등산객 수가 늘어나는 초가을을 맞아 피해자는 더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뱀은 높이 뛰어오르지 않아 복사뼈 위를 덮을 정도의 농구화나 등산화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완전한 대비책은 아닌것 같다. 각자 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겠다. 이번주「기자수첩」은 순복음 기도원에서 금식기도를 하다 탈진, 숨진「금식 사망」, 낚시터시비가 70리떨어진 마을청년의 편싸움을 부른「珍島의 7시간 난동극」등으로 이어진다.

뱀조심!

忠南서만 넉달사이에 213명이 물려…

▲忠南도내에서는 지난5월부터 8월사이에 뱀에 물린사람이 무려 2백13명이나 되는것으로 알려졌다.

4일 도 당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5월10일 서산군성연면명천리1구 鄭素姬씨(여·35)가 산나물을 캐러 산에 갔다가 독사에 물린것을 비롯, 이기간중 모두 2백13명이 뱀에 물린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뱀에 물린 주민들이 늘어나자 보건당국은 독사의 독을 제거하는 특효약 안티베린주사액 1백17병을 각 도립병원·보건소·보건지소등에 보내 이들을 치료토록 했다고.

■18일째 금식기도

▲7일상오10시께 경기파주군조성면오산리 순복음교회 금식기도원에서 18일째 금식기도를 하던 朴京河양(25·서울영등포구신길6동3422)이 탈진증세를 일으켜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졌다.

숨진 朴양의 아버지 朴世英씨(66)에 따르면 朴양은 지난달20일 이 기도원에 갔다가 지난4일 집에 잠시 들렀는데 이때 부모는 朴양의 건강을 염려, 기도원에 들어가지 말도록 종용했으나 朴양이 우겨 지난6일 기도원에 다시 들어갔다는것.

朴양은 정신질환때문에 자년3월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 이 기도원에 출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위해 朴양의 사체를 부검키로했다.

▲慶南金海경찰서는 지난2일 S케이크 대리점 주인 이선균씨(26·서울강동구오금동)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했다. 李씨는 지난달 29일하오4시40분께 자기소유인 서울8라6364호 타이탄 냉동트럭으로 경기始興郡내에 있는 S케이크 소매상에 빵과 과자를 배달해주고 서울로 돌아가던중 시흥군소래면 앞길 논두렁에서 6년생 암소 1마리(싯가1백50만원상당)를 발견, 이 소를 자기차에 훔쳐싣고 金海까지 내려가 30일하오2시 進永邑설창리에서 팔려다가 검거됐다.

李씨는 『고삐풀린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것을 보고 도심이 발동했다』고 진술.

<그림·權大雄>

순복음 기도원서 禁食기도하다 숨지고
마을청소년 편싸움까지 빚은 낚시터시비

■珍島의 7시간난동극

▲全南珍島경찰서는 마을청년 15명을 동원, 흉기를 들고 70리길을 찾아가 7시간동안 난동을 부린 曺根煥씨(43·진도군진도읍쌍정리)와 마을청년 金玉鉉씨(23·진도군진도읍교동리)등 18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曺씨는 지난2일하오3시께 진도군지산면심동리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중 옆에서 새우잡이를 하던 曺淳行씨(55·진도군지산면소포리)에게 새우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4m깊이의 물속에 넘어뜨려 1주의 상처를 입혔다는것.

曺씨는, 폭행당한 曺淳行씨와 같은마을 사람인 劉富義씨(40)가 『나이 많은 사람에게 그럴수 있느냐』며 멱살을 잡자, 28㎞떨어진자기집으로 전화를 걸어 장남(18)에게 『내가 소포리마을 사람들에게 집단으로 얻어맞았으니 빨리 마을청년들을 데려오라』고 연락했다는것.

이에 흥분한 마을청년 15명이 몽둥이를 들고 劉씨집으로 몰려와 劉씨를 마구 때리는 한편 마을주민들에게까지 폭언·폭행등을 저지르는등 3일새벽4시까지 무려 7시간동안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기념주화신청 불평많아

▲忠北堤川시내 6개시중은행들은 88올림픽기념주화 구매신청을 이미 받고서도 본점에서 배정된 주화량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뒤늦게 신청금액을 되돌려주고 있어 신청자들이 불평.

堤川시내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16일부터 시민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10만원에서 1만원짜리 까지의 고액 기념주화 구매신청을 받았는데 조흥은행 지점의 경우 49명이 10만원짜리를, 25명이 8만원짜리, 64명이 2만원짜리, 1백27명이 1만원짜리를 각각 신청받았다. 그러나 서울 본점에서 배당된 주화가 감소됐다며 이중 1백18명의 구매신청자들에게는 신청금을 다시 돌려주고 있다는 것.

이밖에 堤原郡 농협지부도 3백33명으로 부터 구매신청을 받았으나 같은이유로 1백99명은 현금을 되돌려줘 불평을 샀다.

■오토바이타고 들치기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들치기를 한 林圭東씨(22·전과2범·서울 성동구 성수동 335)등 羅根宋씨(20·주거부정)등 2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林씨는 지난1일 하오1시10분께 서울강남구대치동 한보아파트 모델하우스 앞길에서 길가던 洪仁華씨(28·여·서울강남구반포동 삼호가든아파트4동209호)에게 접근, 옆구리에 끼고 가던 현금40만원, 수표 다이어반지등 2백90여만원어치의 금품이 든 핸드백을 날치기해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종로경찰서는 6일 權重烈씨(24·가구점외무사원·서울 도봉구쌍문동3의8)를 공무원자격사칭및 특수절도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李基秀씨(26) 전경배씨(38)등 2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놀란「흉기든 복면강도」

▲釜山東萊경찰서는 지난2일 陳창범씨(29·동래구사직동117)를 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陳씨는 지난달31일 새벽2시께 같은동네에 사는 金모양(24)방에 복면을 하고 칼까지 들고 들어가 잠자던 金양을 깨워 백금반지 1개를 빼앗고 돈을 내놓으라고 계속 위협하던중 金양이 놀라 기절하자 金양이 죽은줄알고 덩달아 놀라 반지도 내버리고 달아났다는 것이다.

金양집에서 실패한 陳씨는 1일밤 다시 흉기를 들고 대상을 고르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들었던 것.

서울강남경찰서 보안과외근계소속 金水鎬순경(40)은 지난1일밤 10시50분께 순찰차를 타고 근무중 주민의 신고를 받고 강남구청담동AID아파트15동103호 洪영숙씨(39·여)집 안방에서 洪씨등 3명의 가정주부가 판돈 35만원을 놓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를 하는 현장을 덮쳤다는것.

金순경이 이들을 경찰서로 연행하려하자 洪씨는 金순경을 옆방으로 불러 현금50만원을 주머니에 찔러주며 『이사실이 알려지면 중동에 나가있는 남편이 얼마나 실망하겠느냐』며 눈감아 줄것을 사정했으나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 주는 사람도 걸린다』고 충고한후 연행, 도박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것.

▲서울강서경찰서는 지난1일 세탁소에 들어가 남이 맡긴 옷을 찾아가려던 元鎭周씨(41·전과7범·이발사·서울관악구신림동142의91)를 사기혐의로 입건.

元씨는 지난달31일하오7시반께 강서구화곡동 111의67 화양세탁소 (주인 오수근·34)를 찾아가 세탁소안에서 어물쩡대다 걸려있는 전모씨의 검정색 양복바지를 주인몰래 훔쳐봤던것. 元씨는 태연하게 『내가 이 바지의 임자인데 세탁이 끝났느냐』며 주인 吳씨에게 세탁비 8백원을 내고 바지를 갖고 나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주인 吳씨에게 덜미를 잡혀 경찰에 넘겨진것이다.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지도를 팔고 있읍니다요!" "어디든지 선생님을안내해줄 지도랍니다!" "집어치워! 집으로 가라구!" "갈수가 없어요…길을 잃었어요!"

「한국名作」속의 숨은그림찾기

선비와 대추나무골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읍니다. 아내는 남편의 깨끗한 마음을 알고있기 때문에 아무 불만없이 갖은 고생을 다해가면서도 근근히 살림을 꾸려 나갔읍니다.

그러나 먹을것이 재대로 있을리 없었읍니다. 어느날 덜컥 선비는 앓아 누워버리고 말았읍니다. 살림은 더욱 어려워지고 죽한그릇 먹지 못하고 굶는 날이 늘어만 가는데, 아, 어느날 갑자기 돌개바람이 불어대더니 이웃집 대추나무에서 빨간 대추알들이 선비집 마당 가득히 떨어져 내리는게 아니겠읍니까.

남의것인줄은 알지만 병중에 굶고 있는 남편을 생각한 아내는 그 대추나무열매를 선비에게 권했으나 선비는 굶어죽더라도 떳떳치 못한 음식에 손을 댈수없다며 남의 물건을 허락없이 가져온 아내의 행위를 꾸짖으며 같이 살수없으니 나가달라고 말하였읍니다. 아내는 울면서 잘못을 빌었지만 선비는 용서치 않았읍니다.

<작품중에서>

구성·장태산

■숨은 그림

부채 운동모자 접은우산 줄넘기줄 쥐한마리 가방 프라이팬 팽이 삼각자 송곳 종이비행기 여우머리 뱀한마리

살림의 지혜

여름 용품 손질

가을을 피부로 느끼게 요즘 날씨가 달라졌다. 그동안 요긴하게 써온 여름 용품의 손질과 보관을 서둘러야 할 때다. 특히 돗자리나 발, 여름 옷등은 한해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닌만큼 정성들여 손질해 두어야 다음해에도 새것처럼 쓸수 있다.

여름에 입었던 옷은 땀이 배어 있으므로 단 한번밖에 입지 않은 것이라도 반드시 세탁을 해야한다. 깨끗이 빤 옷은 옷장속에 넣어 보관을 하는데 남방, 와이셔츠의 경우는 칼러에 마분지 심을 넣어 상자속에 넣어두어야 모양이 일그러지지 않는다.

주름치마는 옷단을 주름대로 접어서 휜실로 시쳐두면 주름이 펴지지 않는다. 너무 팽팽히 시침질을 하면 나중에 실자국이 남으므로 조심한다.

풀을 먹여 입던 모시나 인조속옷은 풀기를 완전히 뺀후 보관해야 누렇게 변색이 안된다. 땀에 찌든 여름 용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얼룩빼기가 힘들어지므로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

수영복, 비치웨어, 타월등은 소금기가 없도록 손질해 보관하고 흰가죽 핸드백은 가죽용 클리너로 더러움을 닦고 다시 마른 수건으로 문지른다. 구두는 냄새가 심하면 안쪽으로 세제액을 바른후 급히 닦아내고 마르면 구두약으로 마무리를 한후 신문지를 넣어둔다. 핸드백에도 신문지를 넣어 모양이 변하지 않도록 한다.

돗자리는 물에 식초를 조금 넣어 발눈을 따라서 닦으면 윤이 난다.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말려 돌돌 만 다음 세워서 보관한다.

대나무발은 세제를 흠뻑 축인 스펀지로 여러번 씻은 다음 물로 헹구어 볕이 없는 응달에서 천천히 말려 보관한다.

그외 비닐로 만들어진 레저용품은 깨끗이 닦아 바람을 뺀다음 접어둘때 사이사이에 밀가루를 뿌려둔다. 망사로된 여름용 커튼도 깨끗이 빨아 방충제를 넣어 차곡차곡 개켜 보관한다.

珍기록

최대 야구장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클리블랜드·뮤니시펄 스타디움은 관중석이 7만6천9백77석이다.

맛사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내고향 통닭집

◎예전의 분위기가 아닌 새로 단장한 통닭집에 한번 들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날로 성장하고 있읍니다.

메뉴

오뎅·백반	$ 3.75	빈대떡 4개	$ 2.—
우동	$ 3.—	짜장면, 곰탕	$ 3.75
냉면	$ 4.—	갈비백반	$ 5.75
통만두	$ 3.—	생선찌개백반	$ 4.75
김밥	$ 2.95	통닭	$ 5.95
칼국수	$ 3.75	½닭	$ 3.75
곰탕	$ 3.75	불고기백반	$ 5.95
비빔밥	$ 4.00	생선초밥	$ 4.50

지역에 따라 배달 가능합니다.
658½ BLOOR ST. W. ☎: 537-0432 주인백

보십시요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 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 주기를 자주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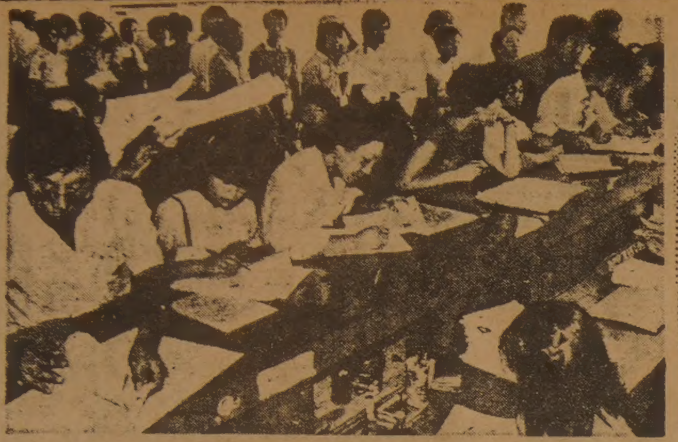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537-3104

한국일보의 광고효과를 말해주는 한국 안내광고란

구독신청 533-2361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유학인력은 국력의 상징。선진학문을 익히려는 유학지망생들로 여권창구는 항상 붐빈다。

문호개방후 해외유학붐 절정에…

專攻大學 선택이 성공비결… 각국의 유학實態 가이드

해외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부쩍늘어났나. 그간 폐쇄적이던 유학의문이 활짝 열렸기때문이다. 최근 3년동안 유학생수는 매년 배로늘어나면서 유학붐이 절정에 달해있다. 이같은 봄에 편승한 맹목적인 유학도 적지않은것 같다. 많은 학비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유학은 전공및 대학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최근 3년 每年 倍로 급증
맹목적 유학도 적지 않고

작년 한햇동안 4천3백68명의 유학생이 해외에 나갔다. 올해들어서도 지난5월말현재 2천8백25명이 해외유학길에 오른것으로 집계되고있다. 외국대학의 학기시작이 대개 가을철이란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무척 많은 유학생들이 몰려 나갈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문교당국은 올해는 7~8천명이 해외유학을 떠날것으로 추산하고있다.

7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매년평균5~6백명선에 머물고있던 해외유학생이 이처럼 급증하고있는것은 그동안 폐쇄적이고 규제위주였던 해외유학정책이 문호개방으로 전환했기때문이다.

4년전인 78년도만해도 해외로 나간 유학생수는 6백84명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이해9월 해외유학의 문호를 넓히기위해 해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한뒤부터 해외유학붐은 불붙기 시작했다.

지난79년엔 1천2백20명으로 78년에비해 배로 유학생수가 늘어났다. 80년엔 2천3백84명, 81년엔 무려4천3백68명으로 3년동안 매년 배로 불어났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몇년간은 계속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정식으로 해외유학을 인정하기 시작한것은 지난53년부터. 유학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경제적인 여건등으로 가급적이면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써왔었다.

어려운 유학자격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든지 병역을 마쳐야하는등 까다로운 규정을 두어 가능한 유학을 억제해 왔었다.

그래서 유학을 인정했던 지난53년부터 78년까지 26년동안 해외로 나간 유학생수는 1만5천여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굳혀있던 유학의문이 열리자 79년부터 82년5월까지 불과 3년반만에 1만7백97명의 유학생이 해외로 쏟아져 나갔다.

정부가 유학정책을 전환, 문호를 개방한것은 고급전문인력의 양성을 촉진하고 학문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선진 여러나라의 학문과 과학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지난78년부터 술술 풀어주기 시작했던 유학억제정책을 지난81년8월 해외유학에관한 규정을 대폭개정,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유학자격시험과 인적제도를 없애버렸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 남자의 경우 병역문제는 크게 완화했다.

종전에는 병역을 다쳤거나 면제된자만 유학이 가능했으나 대학재학생은 24세, 대학원재학생은 26세까지 입영을 연기할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문호개방으로 최근 해외유학붐은 절정에 달해있다.

대학마다 해외유학상담실이 설치되어 만원을 이루고 있으며 민간알선단체도 10여개나 생겼났다.

해외유학의 양상도 많이 달라졌다. 종전에는 대학졸업생들이 주로 나갔는데 요즘은 대학 저학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것이다.

특히 명문대학에 실패, 마음에 들지않는 대학에 진학한 1학년생들이 유학하려는 경향이 짙다는것.

후기대학인 모대학의 경우 각과마다 서너명씩의 신입생들이 수속을 서두르고 있다.

유학자격이 대학재학생이거나 고교성적이 20%이내이면 누구나 쉽게 유학할수 있기때문에 경제적 여유가있는 가정에서는 해외유학을 서두르고

각대학마다「留學상담실」設置…항상 붐벼

있는 실정이다.

유학희망자들 중에는 뚜렷한 목적도 없이 시험도 치르지않는 3류대학을 지망하는 부류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졸업정원제로 중도탈락을 우려한 대학재학생, 국내명문대학에 낙방했거나 합격할 자신이 없는 고졸생, 시원치않은 대학에 다니는것이 가정과 부모의 체면을 손상한다고 생각하는 부류이다.

올들어 해외로 나간 유학생중에는 이러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정환경이 좋은 1학년생들이 손쉬운 외국의 대학을 많이 찾고있다』고 한 대학의 유학상담실 관계자는 말하고 있듯이 여유있는 가정에서는 국내 일류대학을 못다녔바에야 유학을 하자는 경향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

문교부교직국제국재외국민교육과장 高在英씨는『많은 유학생이 해외로 나가 선진학문을 익히고 오는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전제하고『그러나 유학은 뚜렷한 목적아래 대학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高과장은『대학의 선택은 전공교수의 지도를 받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해준다.

재외국민교육과 교육연구관 張英烈씨도『유학문호의 개방은 그동안 여러가지 제약으로 꼭 유학해야할 사람들이 못나가고있던것을 자유롭게 해준것』으로 생각해야되며『유학하려는 당사자나 부모들도 외국에만가면 성공할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금물』이라고 충고했다.

『누가 가니까 나도 가야겠다는식의 유학은 도중탈락으로 좌절감만 안겨다 줄뿐』이라면서 유학은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유학생의 경우 85%이상이 자비유학생이란것을 감안할때 유학에 앞서 경제적인 문제도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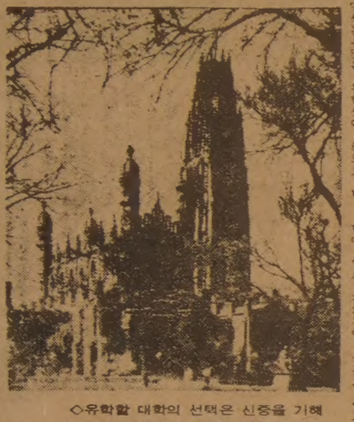
53년이래 지난 5월말까지 해외로 나간 유학생수는 모두 2만5천8백41명.

물론 이 숫자는 공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것.

그동안의 규제로 이민·방문·초청등 다른 목적으로 나가 유학한 경우가 많기때문이다.

그동안의 국별 유학실태를 보면 70%이상이 美國이고 西獨·日本·자유중국의 순으로 나가고 있다.

주요국가별 유학절차는 다음과 같다.



◇유학할 대학의 선택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사진은 미국명문예일대학)

각국 유학가이드

◇미국

미국에는 3천여개의 대학이 있으나 권장할만한 학교는 3백여개.

미국의 학제는 2학기제 3학기제 및 4학기제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인 입학시기는 가을학기이며 특별한 경우나 몇몇 학교가 겨울 또는 봄학기에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입학허가서 입수는 전공과 학교를 선택한후 그 학교에 의뢰문을 작성해 보내면 원서와 함께 안내서를 보내준다.

그 안내서에따라 지망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해 보내면 학교에서 서류를 심사한뒤 입학허가여부를 통보해준다.

미국대학의 원서마감은 가을학기인 경우 재정적보조를 요구할때는 1~2월까지, 다른 장학금을 얻어왔을 경우나 자비인 경우 4~6월초, 겨울학기인 경우는 7~9월이다.

입학에 필요한 서류는 대개 입학원서·재정보증서·성적및 졸업증명서·교수추천서·각종테스트(TOEFL SAT GRE GMAT)·건강진단서등을 요구하고있다.

미국의 대학은 거의 예외없이 TOEFL(영어기초학력테스트)을 요구한다.

또 미국대학들은 TOEFL외에도 SAT GRE GMAT등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SAT는 우리나라 대학입학력고사처럼 일종의 적성검사로 언어능력과 수학을 테스트하는것이고 GRE는 일반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시험으로 적성검사와 전공과목시험으로 나뉘는데 어휘력과 수리분석력을 측정하는 고급테스트.

GMAT는 전공이 경영학일때 요구하는 시험이다.

서울종로구운니동에 있는 풀브라이트(한미교육위원단)가 미국유학상담지도센터로 이곳에 미국 2천여개대

美 풀브라이트엔 각大學 요람비치·상담
西獨 講義 받을수 있는 語學실력 갖춰야

학의 요람을 비치하고 있으며 TOEFL GRE GMAT시험원서를 교부하고 있다.

釜山·大邱·光州에 있는 미국공보원에서도 유학상담과 원서를교부한다.

이곳에서 원서를 입수, 수수료를 동봉하여 미국의 대학에 보내면 시험일자와 시험장소(서울·釜山·大邱·光州·大田)를 통보받게된다.

TOEFL점수는 7백점만점이나 학교에따라 요구하는 점수가 다른데 대부분 5백점이상을 요구한다. 명문대학에서는5백80~6백점이상을요구한다.

◇한국학생들이 많이 유학하고있는 하와이대학。이 대학엔 한국학센터까지 설치되어있다。

◇西獨

서독의 대학은 학문성을 띠는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분되는데 학문성을 띠는 대학이 60여개로 모두 국립이다.

학기는 겨울학기(10·1~3·31)와 여름학기(4·1~9·30)로 한학년은 겨울학기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 고교졸업생이 서독의 대학에 들어가자면 입학자격인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시험을 면제받으려면 우리나라대학에서 3학기정도 재학한 사실증명으로 가능하다.

입학자격인정시험을 보기위해서는 서독에 설치되어있는 외국학생 학업을 위한 강의를 1년간 들어야된다. 이 강의를 듣는데도 우선 독일어수업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가 검토되며 부적하다고 지적되면 대학의 어학코스나 사설어학소등에서 실력을 길러야한다.

대학의 입학허가는 그 대학에서 실시하는 언어시험에 통과해야한다.

또 서독의 대학은 학업을 경제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재정보증을 요구한다.

독일의 모든대학은 학비가 전혀 없으나 매학기당 실습비로 2백마르크(약6만원) 자연과학분야는 5백마르크(약15만원)이며 매학기 2백50마르크(약7만4천원)의 의료보험료와 7백마르크(약20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소요된다.

서독에서는 외국인학생에게 아르바이트를 금지하고있으며 장학금도 제한되어있다.

입학허가서를 얻기 위해서는 원하는 대학의 입학허가및 등록신청서와 여러학과 과정목록·실습요강등 자세한 정보를 얻어야된다.

입학허가 마감일자는 겨울학기는 7월15일, 여름학기는 1월15일까지.

서독대학의 주소·설치학과등 자세한 유학상담은 서울의 독일문화원에 문의하면 된다.

◇프랑스

프랑스에 유학 가려면 매년 1월부터 2월초 사이에 주한프랑스대사관 문화과나 프랑스문화회관에서 입학가등록신청서를 배부받아 2월15일까지 제출해야한다.

입학가등록신청자는 받아쓰기·작문·문법등의 불어테스트를 받아야하며 필기시험후 프랑스대사관 문정관과의 인터뷰가 있다.

이같은 테스트를 거친 서류는 프랑스대학생 국제위원회에 보내져 서류검토및 평가를 받은다음 당사자가 원하는 학교에 보내진다.

이 평가서를 받은 대학에서는 수용능력에 따라 입학허가여부를 7월15일까지 본인에게 전달한다.

프랑스대학은 학비가 거의 없으나 생활비가 1천5백프랑(약16만원)정도가 필요하다.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는 힘들다.

상세한 유학상담은 서울종로구사간동에있는 프랑스문화관에서 응하고있다.

◇英國

영국에는 35개의 종합대학교(웨일즈지방포함)가 있으며 스코틀랜드에 8개, 북아일랜드에 2개의 종합대학교가 있고 31개의 공예학교와 1백53개의 기술대학이 있다.

영국대학의 학기는 9~10월에 시작되며 영국에 유학하자면 원하는 대학에 18개월전부터 입학허가 관계를 문의해야만 된다.

또 충분한 어학실력이 없으면 입학이 불가능하며 입학이 되었더라도 강의를 듣는데 충분치 못하면 어학훈련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받아야한다.

종합대학교의 경우 80~81년 기준으로 연간 3천2백50파운드(약4백13만원)의 생활비와 등록금으로 미술분야는 2천파운드(약2백54만원) 자연과학분야는 3천파운드(약3백80만원) 의학분야는 5천파운드(약6백35만원)가 들어간다.

영국은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장학금을 받기가 무척 힘들고 유럽공동시장 가입국이 아닌 나라의 학생은 아르바이트자리가 거의 없다.

영국대학에 관한 문의는 서울중구정동에 있는 영국문화원에 하면 된다.

◇캐나다

이곳에는 60개의 종합대학교와 1백50개의 지방대학이 있으나 유학을 할만한 대학은 10여개 정도로 대학선택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입학시기는 9월. 입학허가서 신청은 늦어도 1년전부터 해야 허가서를 얻을 수 있다.

입학허가 신청서에는 거의다 TOEFL테스트 결과를 요청하며 그밖에 전학년 성적증명서, 재학및 졸업증명서등을 요청한다.

학비는 주마다 다르나 연간 생활비및 학비는 81년 기준 4천2백달러(약 2백52만원)정도.

캐나다에는 한국 유학생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은 없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닐 생각은 하지않는게 좋다.

캐나다대학의 입학허가서를 받았다해도 비자신청때 건강진단서와 신원조회서를 요구하며 재정보증을 확실히 하지않으면 비자발급이 안된다.

비자발급기간은 대개 신청후50일정도.

상세한것은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알아보면 된다.

◇日本

일본에는 우리나라 학제가 인정되므로 원하는 대학에 입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본내의 보증인(일본인 또는 영주권소지자)이 반드시 있어야한다.

입학허가서를 얻자면 일본에 거주하는 보증인에게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건강진단서·일본어능력증명서(일본 공보관에서 매주1회 시행)등 소정서류를 보내야된다.

보증인이 이 서류를 대학에 제출하여 입학허가를 신청하면 가입학허

日 한국學制인정…

가서를 받게 된다.

가입학 허가서가 본인에게 도착되면 일본어 전공과목등의 시험을 거쳐야만 정식입학이 허가된다.

등록금은 우리나라보다 비싸며 장학금도 여의치않고 유학생은 아르바이트를 못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일본대사관 공보관실에서 유학상담을 하고있다.

◇자유중국

자유중국에는 국립대학 13개와 사립대학 13개가 있다. 입학시기는 9월.

자유중국에 유학하려면 매년 2월에서 6월15일 사이에 주한 자유중국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서식에 원하는 대학의 입학희망사항을 써서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대사관의 문화참사관이나 문정관과의 인터뷰로 중국어회화·작문등 일반적인 테스트를 받게된다.

인터뷰 결과가 자유중국의 대학에 보내지면 심사를 거쳐 입학허가여부가 통보되어 온다. 학비및 생활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다. 입학할때는 장학금을 받을수 없으나 한학기정도 지나면 각종 장학금이 많기때문에 노력만하면 기회는 많다. 주한중화민국대사관 문정관실에서 유학에대한 상담을 할수있다.

<金弘祚기자>

해외유학 資格
예·체능계 전국규모 경연 입상자도

①대학재학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있는자로 전문대학·교육대학·구제초급대학및 사범대학과 구제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경찰대학·세무대학·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구제 실업고등전문학교 4학년 재학이상자)

②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석차가 상위20%이내에 해당하는자(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졸업자, 방송통신고교졸업자, 구제 실업고등전문학교 3학년수료자, 특별법에의해 설치된 고교에 준하는 학교졸업자등도 포함된다)

③고교재학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 자연과학분야의 전국규모 전람회나 기능 또는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력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자가 같은 전공분야에 유학할 경우로서 문교부장관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④중학교 재학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서 예능및 체능분야의 전국규모 경연 또는 경기대회에 입상실력이 있는자 또는 전공분야의 학교성적이 우수한자로 동일 전공분야에 유학할 경우로서 문교부장관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⑤외국정부 또는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선발된자로서 문교부장관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⑥국비유학 선발시험에 합격한자로서 문교부장관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無冠」徐奉洙, 권토중래의 집념

—棋王戰 1국 침착한 行馬…曺薰鉉에 6집半勝 거둬

曺薰鉉이 한국바둑계를 재통일한지 2개월만에 다시 徐奉洙와의 격돌이 시작되었다. 지난 7월7일 제7기 王位戰 도전7번기 제7국에서 역전패, 마지막으로 보유하고 있던 王位타이틀을 曺9단에게 넘겨주고 「무관(無冠)의 왕자(王者)」로 돌아갔던 徐7단은 지난 2일 벌어진 제7기 棋王戰 도전7번기 제1국을 승리로 장식, 권토중래의 꿈을 키우고 있다.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바둑팬들의 요청에 따라 인천시내의 다원장여관에서 열린 이날 대국에서 흑을 쥔 徐7단은 시종 침착한 반면운영으로 2백91수만에 6집반승을 거두어 타이틀재탈환의 끈질긴 집념을 보여주었다.

이날 대국에서 徐7단이 승리함으로써 두 기사는 지난 74년1월 왕납배쟁탈바둑대회(지금은 없어졌음) 패자준결승에서 처음 맞부딪친이래 지금까지 9년동안 모두 97번 싸워 曺9단이 63번 이기고 徐7단이 34승을 기록했다.

한편 棋王戰 도전기 제1국은 한국기원 동인천지원에서 인천출신전문기사인 劉丙虎6단과 徐能旭6단이 공개해설을 했는데 제2국은 9월17일 열릴 예정이다.

週間 바둑詰題

아마棋士 모두 이겨
張秀英, 最高位도전자 결정전에

○…아마추어가 프로를 완전히 제압했다. 한국기원과 월간 바둑이 주최하는 제6회 프로·아마대항전 첫번째 대국에서 아마추어기사들이 4국을 모두 승리, 기염을 토했다.

바둑팬들의 인기투표로 선정된 10명의 프로기사들과 아마10강전에서 입상한 아마기사 10명이 같은 순위자끼리 대결하는 프로·아마대항전 첫번째 대국은 2위인 徐奉洙7단과 金東輝4단(아마), 5위인 姜勳4단과 李寬哲4단(아마), 8위인 金秀英6단과 李爾容5단(아마), 10위인 金熙中6단과 金基憲3단(아마)의 대전등 4국이 진행됐다.

두점 접바둑으로 진행되는 프로·아마대항전의 역대전적은 제1회때는 5대5로 무승부, 제2회는 프로가 5승1무4패로 승리, 제3회에도 역시 프로가 6승4패로 승리했으나 제4회때 아마가 7승3패로 첫 승리를 거두었고 작년인 제5회때는 다시 프로가 6승4패로 이겼다.

이로써 대회전적은 3승1무1패로 프로가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통산대국 전적에서도 50전26승1무23패로 프로가 다소 앞서 있다.

○…7개 신문기전중 유일하게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제22기 最高位戰 승자결승에서 張秀英6단이 尹奇鉉8단을 2백4수만에 백불계로 물리치고 도전자를 결정짓게되는 최종결승전에 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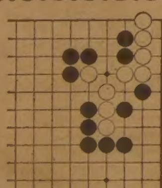
張6단은 패자결승전에 대기하고 있는 徐奉洙7단과 尹8단과의 승자와 다시 대결, 曺薰鉉최고위에 도전할 마지막 감자를 가려내게된다.

○…제14기 名人戰의 도전자를 선발하기 위한 본선리그전이 9월14일부터 시작된다.

본선에 참가하는 기사는 전년도 시드에 잔류한 徐奉洙7단, 張秀英6단, 姜勳4단, 河燦錫7단등 4명과 새로 3차예선을 거쳐 선발된 盧永夏7단, 徐能旭6단, 李相滿4단등 모두 7명이다. 【현】

妙手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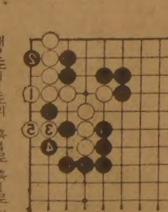
<문제도>
白先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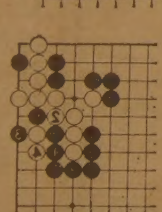
백이 두집을 내려면 「이것」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는것만 발견하면 문제는 간단한 것이다.

첫수와 두번째 수가 중요하다. (지난호 묘수풀 해답도 제1도와 제2도가 바뀌었읍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빕니다)

<해답도>



제1도=먼저 백1로 내려서 두집내자고 하면 흑2는 불가피. 이때 백3으로 끼워붙이는 수가 급소. 흑4로 단수해왔자 백5로 늘면 그만이다.



제2도=1도의 흑4로 흑1로 이으면 당연히 백2로 끊는다. 이어서 흑3에는 백4로 나가면 된다.

지붕위에서 讀書 ◇인디애나주립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팀·글리슨군이 블루밍턴에 있는 자기 아파트지붕위에 올라가 누운채로 교과서를 공부하고 있다. 인디애나주 사우드 벤드가 고향인 글리슨군은 공부할게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 그랬다고…。【AP】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M WORKING ON IT.

I'm working on it.이란 어떤 일이 완결되었는지를 묻는데 대한 대답으로 「진행중이다」「추진중이다」라는 말로써 자주 사용되는 미국영어 표현이다.

「직업을 구했나요」 Did you find a job? 「아니오. 아직 구하는 중입니다」라고말하는 경우는No, but I'm working on it. 하면 될것이고, 「미국 영어회화를 배우셨어요?」 Did you learn to speak American English?라는 질문에 「목하 배우는 중입니다」는 I'm working on it. 담배를 끊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에게 「담배를 끊었읍니까?」 Have you quit smoking라고 물었을 때 「아직 못 끊었지만 끊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고 할때는 I'm working on it. 이같이 하면 된다.

A : Did you finish your chemistry assignment?
B : I'm working on it.
A : Class starts in twenty minutes.
B : I know.
A : Do you think you can finish it?
B : I can finish if you quit bothering me.
A : 화학 숙제를 끝마쳤니?
B : 하는 중이야.
A : 수업은 20분후에 시작이야.
B : 알고 있어.
A : 그걸 끝낼수 있겠니?
B : 네가 방해를 하지 않는다면 끝낼 수 있지.
A : I thought you could play the guitar.
B : No, I can't, but I'm working on it.
A : What does that mean?
B : I'm trying to learn to play.
A : Better learn fast. The recital is next month.
B : I know. Wish me luck.
A : 기타를 치실줄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B : 아닙니다. 못쳐요.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A : 무슨말씀이시죠?
B : 배우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A : 빨리배우는게 좋겠어요. 연주회가 다음달 이거든요.
B : 알고있읍니다. 행운을 빌어주세요.
A : Mary, do you have that reservation on the night flight to Chicago yet?
B : No, not yet, Mr. Jones, but I'm working on it.
A :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B : I don't know. I just keep getting a busy signal.
A : Well, keep working on it.
B : Yes, sir.
A : 메어리, 시카고행 야간 비행기 표 예약했나요?
B : 아니예요, 아직 못했는데요. 존즈씨, 수속 중입니다.
A : 무슨문제가 있나요?
B : 모르겠어요. 계속통화중인데요.
A : 그러면, 계속해봐요.
B : 네.

quit bothering me : 귀찮게 굴지마라. (=leave me alone). better learn fast : 빨리 배우는 편이 낫다. (=You had better learn fast) reservation : 예약, 예약석. a busy signal : 통화중신호.

구입처: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312) 966-4050
책: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連載 소설

人間市場

스물세살의 자서전

金洪信 作
崔然石 畵

92

지난줄거리

약수터 다니는 은주 누나를 따라 산에 올라갔다가 천막치고 사는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듣게 된다. 새마을사업장에 좇아다녀 번 백만원을 임사장 마누라에게 이자놓이로 준 할머니는 한글을 모르는 까막눈이었고 그 여편네는 차용증서를 거꾸로 써서 할머니의 전세돈 백만원까지 앓겨먹은 사건이었다. 그래서 산 속에 천막치고 사는 한맺힌 할머니는 울고만 있었다.

할머니의 음울한 목소리를 되새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말도 말우. 하도 억울해서 그 집구석에 들어가 양잿물까지 먹었다우. 그 담부터는 숫제 문도 안 열어주고 경찰서에 넘깁디다. 악을 쓰고 허물 깨물고 갖은 지랄을 다해도 내가 돈을 꿔갔다니…그래서 결국 전세돈 떼준거유. 그러고도 이 늙은년이 살아 있다우. 목숨이 질기긴 합디다.』

할머니는 이자 준 백만원은 고사하고 전세돈 백만원까지 빼앗기게 된 판이라 버릴 때까지 악을 썼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할머니는 법앞에 울일한 증거자료인 차용증서 때문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게 사실입니까?』

내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물었다.

『믿을 사람이 없는 것도 당연하지. 이자돈 준걸 아는 사람도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는 세상이니까.』

『그게 누군데요?』

『그년 친구지 누구겠수.』

『이해할 수 없어서 그래요. 세상에 그런 일도 다 있어요? 혹시 할머니가 돈받으러 가서 뭔가 잘못하신 거 아녜요?』

할머니는 회상하듯 고개를 젓혔다.

『어느 년이 두번씩 속아넘어가고 그냥 있을까…세번째 이사간 아파트에 가선 막 소리부터 질러 댔지. 내 돈 떼어먹은 도둑년이라고 말이우. 내 생각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받을 재간이 없을 것 같았지. 도둑년 배짱이 아니고서야 그럴 순 없었을 거 아니겠수? 그랬더니 아파트 사람들이 좌악 모입디다. 막 해댔지. 당장 내 구렁이 심줄같은 돈 내놓으라구….』

『첫번째 집 찾아 갔을 때도 그랬죠?』

『안그럴 년이 어디 있겠수. 내 평생에 첨 만져본 돈인데. 그것도 그년 도망 가고 애새끼들 데리고 먹을것 못먹고 입을것 못 입어가며 내 배만 곯은게 아니라 저놈들 곯려가면서 모은 돈인데…젊은이 같으면 첫번째 도망갔을 때 그냥 뒀겠수?』

『아뇨.』

『그래서 악을 바락바락 썼지. 그년이 당황해 가지고 나를 막 잡아 끌더니 선이자 두달치 주고 이놈의 종잇장 써준 거라우. 애들 갔다주라구 과자두 주고, 막상 환대를 받으니까 내가 심했다 싶어서 백배사죄하고 왔다우. 그때 무슨 짓 하든 받아냈어야 하는건데….』

못내 아쉬운 모양이었다.

상황을 대충 들어본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가슴을 억제할 수 없었다. 처음 이사간 아파트 앞에서 악을 바락바락 쓰는 무식한 할머니한테 당한 앙가움치곤 너무 지나친 일이었다. 돈 백만원 때문에 당한 수모를 그런 식으로 되돌려 줄수 있는 부잣집 여편네의 심정을 현미경 밑에 넣어 관찰해 보고 싶었다.

할머니 말은 상당히 할머니 입장만을 설명한 것이었다. 부잣집 여편네에게 그 이상의 창피를 줬을 것 같았다.

『그 여자, 지금 어디 살아요?』

『또 이사갔답디다. 주택 사가지고 갔다는데 어디 사는지 모르겠수.』

『그 뒤로 또 찾아갔었어요?』

『안찾아가면 나는 어찌 살란 말이우. 자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뜬눈으로 새우는 걸. 새벽바람에 냅다 쳐들어갔지. 파출소 사람들도 잡아넣기 지겨웠는지 애원을 합디다.』

『그럼 그 여자 친구는 어디 살아요?』

『친구는 무슨 친구. 춤추러 다니는 년들이. 화투짝이나 만지고 춤바람이 나서 돌아댕기다 만난 년들이라우. 내가 그년 집에서 일해줄 때도 눈꼴이 셔서 못보겠읍디다만…어린 새끼들 생각하고, 산목구멍에 거미줄 칠 수가 없어서…. 나도 성한 년은 아니라우. 이젠 저 새끼들 땜에 죽을 수도 없다우. 저 새끼들만 없대두…그냥 콱 뒈지구 말지….』

절절한 한을 느낄 수 있었다. 보통 늙은이들이 죽어버리겠다는 말은 삶에 대한 극렬한 애착심 때문에 해보는 말이지만 이 할머니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다. 할머니 말을 들으

어쩌면 동정심을 받아내려는 단수높은 거짓말일까

면 할머니가 살아 있는 것이 이상한 지경이었다.

『사람들이 쌀이라도 갖다줘요?』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딨수.』

고개를 절절 흔들었다. 내가 알기는 은주 누나 말고도 약수터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도와준다고 했다. 할머니는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동정심을 받아내려는 단수 높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한편의 드라마를 만들어 구걸의 방패막이로 삼았는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솟아났다.

의심할 만큼 할머니의 말은 너무나 논리정연했고 그럴만큼 간악한 여편네가 이 땅에 존재하리라고 믿어지지도 않았다. 또 그런 억울한 사연을 듣고 일방적으로 부자 여편네를 감싸고 돌 경찰관이나 법관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할머니,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쌀을 한가마씩 갖다준 사람도 있던데요?』

할머니 낯빛이 금방 씰룩거려졌다.

『할머니, 거짓말을 왜 하세요?』

나는 속았다는 기분이 들자 다부지게 따지고 싶었다. 내가 준 돈도 갑자기 아까와졌다.

『이봐요, 젊은이. 오죽하면…이 늙은년이 오죽하면 도움받는 데가 없다고 하겠수. 그렇게 얻어라도 먹지 않으면 저 새끼하구 살아나 있겠수? 도움받는것두 한두번이지…애들이나 커야 남의 집 빨래해서 풀칠이라두 할거 아니우.』

『아까 부잣집 여자한테 당한것도 그래요. 믿어지지 않아요. 할머니가 뭔가 잘못하게 있거나 그만한 사정이 있는거 아녜요?』

『내가 거짓말하믄 벼락을 맞아 죽겠수. 저 새끼들 놓고 어떻게 남을 잡아먹겠수.』

『아무래도 믿을수가 없잖아요?』

『다들 그럽디다. 믿는 사람이 없읍디다. 내가 거짓말로 꾸며낸 거라고 합디다. 내가, 이 늙은 년이 찾아가서 좀 심하게 한건 사실이지만 거짓말은 아니라우.』

할머니는 아까보다 감정을 죽인 음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의 내막을 얘기해 주었다.

두번째 들으면서 앞뒤 말이 틀리지 않았고 그 여편네의 남편과 주변 사람들 얘기를 적어 나갈수 있었다.

『우리 큰 새끼한테 물어보구려. 이 늙은년은 답답하고 폭폭해서 거짓말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새끼는 나 쫓아댕겨 봐서 알거유.』

그 좀 얘기하면 믿어볼 만한 것이지만 나는 너무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학교 다니는 계집아이를 불러내 물어보았다.

할머니 말과 거의 틀림이 없었다.

나는 몇가지 의문을 품고 진위를 캐내려고 유도를 해보았지만 조금도 할머니의 얘기와 다른 게 발견되지 않았다.

『할머니, 제가 해결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젠 돈두 필요없수. 그년 감옥이나 보내면 속이 확 풀리겠수. 그런 년이 어디 사람이우. 여우두 그러진 않을 거유.』

『그래도 돈을 찾아서 집이라도 얻으셔야죠. 금방 산속이라 추워져요. 겨울 나실 생각 말아야죠.』

『나야 한데서 자두 그만이지만… 저 불쌍한 새끼들은…애비 에미두 없는 새끼들을….』

할머니의 눈에선 눈물이 방울져 흘러내렸다. 가슴이 뛰는지 앞가슴을 움켜 쥐고 흐느꼈다.

『그러니까 맘 굳게 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잖수. 해결이 안될 거유. 될 일같으면 늙은년이 이 고생인데 하나님인들 가만 있었겠수?』

『하나님이 딴일 하느라고 바빠서 그래요. 부처님도 있잖아요.』

나는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다.

『그러게 말이우.』

『애들은 괜찮아요?』

『그냥 저냥… 지들두 살아 있는게 장한 거유. 저년이 예배당에서 놀러갔다가 허리를 다쳐서 꼼짝 못하는데… 약값이 있겠수. 예배당 사람들이 쳐다를 보겠수.』

『교회에 다니세요?』

『나는 안 댕기는데 새끼들은 즈이 에미 따라 댕겨서….』

『할머니 이렇게 사는 걸 교회에서 알아요?』

『저 새끼들 땜에 알지.』

『그런데도 안도와줘요?』

『저년이 다쳐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도 어느 년 하나 대가리 내밀지 않습디다.』

『교회에서 놀러가다 다쳤는데도 안 와봐요?』

『누가 아니라우. 그래서 예배당에 다시 나가면 죽인다구 했다우.』

『그럼 요새 교회에 안보내요?』

『즈이들이 몰래 댕기기는 하는 모양인데….』

나는 대충 메모를 한 뒤에 할머니의 천막을 빠져나왔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란 말입니까?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지경인데 누굴 더 믿을수 있단 말입니까? 이땅엔 신실한 진짜 신자도 많지만 가짜 예수장이도 많습니다.

당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읍니다. 회복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그 부잣집 여편네를 때려다 쓰실데가 없겠읍니까? 그런 여자를 여자하나님 시키시면 어떨까요.

그 할머니가 백만원이란 돈을 가졌을 리도 없잖아요

할머니가 살던 동네는 산동네여서 쉽게 할머니의 전세집을 찾을 수 있었다. 백만원짜리 전세집이 어떤 곳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아파트라는 명칭으로 통하는 10여년이나 된 낡고 허술한 아파트였다. 요즘 흔히 말하는 아파트에 비하면 아파트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그런 곳이었다. 지대가 높아서 불편한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비가 새어들어오고 위층에서 흘러내리는 화장실 물과 오물로 얼룩진 것으로 미루어 형편없는 아파트였다.

낡아서 덜커덩거리는 쇠파이프는 녹이 슬어 볼품이 없었고 가운데 복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나란히 현관이 붙어 있어 서로 문만 열어놓으면 방안이 훤히 보이는 곳이었다.

9평짜리 시영아파트. 누가 보아도 그것이 시영아파트라면 나라꼴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영아파트가 민영아파트보다 나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싶진 않았다. 다만 시 소유의 재산이라면 적어도 손질을 해주는 성의쯤은 가져야 했을것이다.

1층입구의 편지함 속엔 한달에 2천원씩 내는 분양금 독촉장이 여러장 있었다. 그 정도의 돈도 제시간에 내기 어려운 서민들이 살고있는 곳이라면 시당국자의 발길이 잦아야 할 곳이었다.

만약 그런곳에 말발이나 있는 떨거지들이 몰려 살았다면 과연 지금처럼 내팽개쳐져 있었을까?

결코 그런 추악한 꼴을 하고 서 있진 않았을것 같았다.

할머니가 살던 집은 맨 꼭대기에 있는 1동이었다. 복덕방 영감 말로는 높이 올라갈수록 집값이 헐하고 전세값도 싸다고 했다.

서울에서 꽤 살만큼 사는 사람만 산다고 소문난 Y동의 산꼭대기엔 그런 낡고 허름한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었다. 시내와 가깝고 교통이 좋아서 서민들이 모여 살기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Y동A지구 아파트 1동에 들어서며 나는 지독한 똥 냄새를 맡았다. 복도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 화장실 오염물질들이 잘 내려가지 않아서 아파트 전체가 그런 냄새였다.

『진정하고 도와달라고 관공서 좇아다녀봐야 외눈 하나 깜짝 않아요. 우리들이 사는 적이니까 우리들 힘으로 고쳐야겠지만…그럴 힘 있으면 왜 여기서 살겠어요.』

나를 안내해주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바로 YA아파트 아래 동네엔 고급주택들이 들어서 있어서 한눈에도 Y동 산다고 하면 부자라는 인상을 받을것 같았다.

『저 공터는 집 지으려고 그러는 모양이죠?』

나는 아파트 앞쪽의 공터를 가리켰다. 터를 닦은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렇대요. 벌써 몇년 됐는데 저렇게 벌겋게 팽개쳤죠. 나무를 마구 잘라내고 하더니…여긴 공원지역인가 개발금지지역인가 해서 나무도 베어낼수 없는 곳이래요.』

『그런데 땅을 닦게 냅뒀어요?』

『들리는 소문엔 옛날 어떤 야당의 대표라는 작자가 터닦았대요. 주민들이 항의했지만 어디 씨가 먹혔겠어요? 지지난 해엔 여름장마에 석축이 다 무너져서 난리가 났었죠. 만약 집 지어놓고 무너졌어봐요. 여러 사람 떼죽음 당했을 겁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작자가, 그것도 야당의 대표까지 했다는 작자가 뒷전에서 땅장사나 해대고 불법인줄 알면서 나무를 베어냈으니 알조 아니겠읍니까.』

『글쎄요.』

나는 성급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 지역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무슨 대꾸든 할 수가 없었다.

『산 위에 하꼬방 짓고 살던 사람들을 죄 몰아낼땐 시퍼렇던 사람들였죠. 무허가 철거할 때처럼 보호지역이면 끝까지 보호해야지 않겠어요? 어떤 놈은 힘 가졌다고 법망도 풀어주고 우리같은 서민들은 하수구 냄새 맡아가며 살아도 어느 놈 하나 얼굴 내미는 놈이 없어요.』

나는 대꾸 없이 그 사람을 따라 단을 밟았다. 그 사람 말은 별로 틀린 것 같지 않았다. 갈라진 벽, 허술한 시공, 낡은 쇠붙이, 유리창 하나 없는 복도, 썩어들어간 난간과 창틀, 얼룩진 오물 흐른 자국들.

『이거 언제 진 거죠?』

『10여년 된다나봐요. 와우아파트 무너질 때 겁나니까 빨간벽돌을 대충대충 붙여놓아서 방도 모두 비틀어졌어요.』

아! 기억하기도 끔찍한 와우아파트 사건과 연결되는 아파트였구나.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때 서울특별시장 하던 사람이 물러났던가? 아닐거야. 아마 더 높아졌었을 거야. 사람을 떼로 죽였으니까 그 배짱이라면 높여주는게 당연했을 것이다. 잘 나려면 그정도는 잡나야 할것이다.

『그럼 차라리 헐어달래지 그래요? 그래서 요즘 잘 지은 시영아파트분양받으면 되잖아요?』

『누가 아니랍니까. 시에서 안전점검 나온다면 사람들이 헐리지않으려고 칠하고 돈 거둬서 메우고 야단입니다. 점검하러온 사람한테 이상없다고 하니까요. 새는곳도 없고 튼튼하다고 자랑합니다.』

『왜요?』

나는 어이가없어서 이렇게 물었다.

『헐리고 다른 좋은 아파트로 갈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새로 지은 시영아파트 분양받으려면 손에 2백만원쯤은 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분양받을 힘 값에 팔아 전세로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새도 좋고 냄새나도 참 수밖에요. 또 대개 먹고 사는 근거지가 요 근처인데 헐리면 저 변두리로 쫓겨가 버스 두번 타고 한시간 넘게 시달려가며 밥벌이 하러 다녀야잖습니까. 딱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파트 내부를 구경하면서 그 사람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다.

『없는 사람들 심정 너무 몰라줘요. 지난 겨울엔 저 아래동네보다 연탄값이 2원이나 비쌌어요. 높은 곳이라 배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보니 Y동 동장이란 작자가 업자측 말대로 올려받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진정서 내고 난리쳤죠. 금새 2원이 내리던데요. 단돈 2원가지고 악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인채 할머니가 꼬마들 다섯명 데리고 살았다는 방을 들여다 보았다. 포개어 자지 않으면 안될 방이었다.

『큰애들은 다락에서 잤어요.』

주인 여자의 말에 다락을 들여다 보았다. 기어다니지 않으면 안되는 층은 다락이었다.

주인 여자는 할머니에 대해 아는 대로 얘기를 해주었다.

『저도 할머니가 고지식한 양반이라 믿을 수밖에 없긴 했지만…그래도 영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할머니가 백만원이란 돈이 있을리도 없구요.』

주인 여자의 결론은 이런 것이었다. 나는 주인 여자가 일러주는대로 주택가에 사는 부잣집 여편네의 친구란 여자를 찾으러 내려갔다.

홈 드레스를 입은 여편네는 내가 찾아온 용건이 바로 그 할머니에 관한 것이라고 하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생각해봐요. 돈 많은 주부가 무엇이 답답해서 없는 늙은이 돈 그런식으로 떼먹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변호사 사무실의 심부름꾼인줄만 아는 이 여자는 냉코피까지 끓여다 주며 열심히 친구를 위해 얘기해 주었다.

〈다음호에 계속〉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d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 - 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마련.
전화 : 532-1054(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 기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귀하의 기업을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 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어떤 광고가 필요하십니까?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광 고 접 수
533~2361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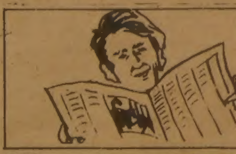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학


광고문의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八路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한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준본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 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귀하의 기업을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유경험자 Cashier구함
261 Scarlett Rd.
(at Eglinton Ave. W.)

(Variety & Grocery)
성실한 가게 Helper 구합니다.
전화 : 769-5956

유경험자 Cashier 구함.
Full Time 또는 Part Time.
Queen & Pape. 전화 : 463-6334

좋은사람 찾음(Gain)
877 Dundas St. W.
Batharst 서쪽 300여m거리

웨이트레스 구함.
Full Time 또는 Part Time
전화 : 656-0456, 654-6609

남자 파타임 가게 헬퍼 구함
(Finch × 웨스톤 근처)
전화 : 741-1465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여권

성명 : 김우경
여권번호 : T.R.W.000768
연락처 : 469-2082 750A Broadview Ave.

하숙

하숙 원합니다. 하루 저녁식사만 해주시면됨.
전화 : 533-0668 Mr. 신(6시이후 전화바람)

구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자기집 소유한 이혼한 40대 남자로서 결혼에 뜻이 있는 한국여성 구함. 어느 정도의 영어회화 요구됨.
전화 : 292-5430 (Mr. Kumar)

25세 미혼여성. 신체건강하고 착실한 남자분 연락바람(현재 가족들이 Toronto에 거주)
전화 : 431-6474

구직

바쁘신분들을 위하여 저의집에서 어린이들을 정성껏 보아드리겠읍니다. (스카브로 지역)
전화 : 264-3700 (Mrs. Lee)

베비시터

입주하셔서 어린애들(1살반, 3살반)봐 주시고, 약간의 살림도와 주실분.(나이아가라폭포 근처) 가족처럼 지낼것은 물론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겠음. 전화 : 716-634-5839(저녁6시이후 연락 바람.)

입주하셔서 애기 봐 주실분 구함.
(Concord 지역)
전화 : 738-0050 (Mrs. 염)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636 Vaughan Rd. #1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 (Mrs. Adroe)

매매

Restaurant 급매(Full Licensed)
좋은 위치와 좋은 조건(좌석 : 60여석), 좋은 전망이나 사정에 의해 급매코저 함. 전화 : 536-0715, 368-9018

"봉학농장"
다음장소에서 9월21일(화)부터 매주 화요일 정기 배달하오니 신선하고 싼 채소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6시 : 2433 Finch Ave. W.
◉오후 7시30분 : 90 Paisley Blvd. W.
(1 Mile North Q. E. W. Missi. Ont.)
◉오후 9시 : 10 Willowridge
(마틴그로브 × 에그린톤)
전화 : 1-775-6256 Mr. 강.

St. Catharines downtown 지역
건물(위층 APT. 살림집) 및 Business 팝니다.
현주매상 : $3,600이상 Good Location
계속 매상 늘고 있는 새로 Set up한 Store
Near G.M.Plant 관심있는분만 연락바람.
전화 : 1-685-5863

Aurora의 최고지역
새로 수리를 끝낸 2 Bed Room Apt.가 이층에 있으며 일절 새장비로 갖춘 Variety Store.
Call : Mr. Jones 889-8654
W.R.Case Realty Ltd.

House for Sale (Private Sale)
완전히 집수리 끝낸 코롱이에 위치한 집.
위치 : Annex(St.George & Bloor)
크기 : 4 Apt House(Legal fourplex). 아스킹 : $299,000
※집으로부터 연수입 $30,000/Year.
Call. Mr./Mrs. Roman 922-6888

(1)주소 찍는 기계
(Addressergrapher Multigrapher)
◉ 최고속도 시간당 5천개
◉ 철판 Plate 사용
◉ 전기로 가동
◉ 가동비 저렴
◉ 사용 간편
(2)Grapher Typer
Plate에 주소를 만들어 넣는 타자기
전화 : 533-2364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800. 리스 : 3년+옵션 5년(Arbitration)
아스킹 : $39,000+스탁. 1000 Pape Ave.

Building for Sale. 982 Pape Ave.
Store & Apt. Suitable for any Kind Business.
전화 : 422-5029 (Mike)

벡커프렌차이스 매매
연락처 : 691-9414 (월-금 오후5시이후)

가정 형편으로 급매
VARIETY STORE. 좋은조건으로 팔고자 함.
전화문의 : 466-0309

이 기회를 놓치다니요!
Good Mortgage rate에 놀라실겁니다!
Variety Store & Detached Building(Bloor & Shaw)
Good Corner Property, Private Drive Way & Garage
다운페이 : $15,000~$20,000
장래 전망이 대단히 좋읍니다.
Call : Steve Politis now
Premore Real Estate 536-5600

2층에 방2개 달린 코너 독채가게
주매상 : $3,500
주 소 : 1574 Kingston Rd.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Dry Cleaning Depot Store for Sale Lawrence & Eglinton area plaza안에 있음.
12 Flemington Rd. 전화 : 759-8658(R) 781-6774(B)

Variety Store매매(No Grocery)
3447 St. Clair Ave. E.(at Birchmount Rd.)
전화 : 265-9900

STORE 장비 급매
◉ Shelve (Wall 120 ft. Floor 144ft)
◉ Card Rack (20 ft. Card도 포함)
◉ 기타 선물용 유리 Rack
연락처 : 622-0323 Mr. Lee (6p.m 이후)

가게렌트

가게 세놓읍니다.(Dundas St. & George St.)
Corner에 위치한 바쁜 자리에 있음.
전화 : 763-3289, 493-9599

간이 모텔

방렌트 하실분.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아파트렌트

방세 놓음. (College×Brunswick)1 Bed Room
전화 : 923-6236

하숙 또는 독신자 방세 놓읍니다.
(단기 체류도 환영) ◉상세문의는 6시이후
전화 : 530-1046

집렌트

4 Bed Room 집 전체를 싸게 세놓읍니다.
(Brampton)
전화 : 247-3216

4 Bed Room House전체를 세놓고자함(Brampton지역)
2 Bath Room, Family Room, Fire Place, 차고등.
$650/M. 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593-8943

룸메이트

Room Mate 구함
5 Capri Rd. 오후 2시전에 연락바람.
전화 : 622-3065 Miss Kim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내보신 분만이
그 효과를 압니다.

광고문의 ☎ : 533-2361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린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관 광

코라메 관광(주)(제일여행사 2층)
일년내내 관광을 함께·····
649 A Bloor St. W. 전화 : 535-0853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시계 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Albion)
전화 : 742-1205(B) 743-4842(R) Mr.마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파티·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청 솔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1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아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시울이껫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미술연구소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 (R)654-5691 ·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부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